

윤석열 대통령 부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립지원담당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이 창업한 부산의 한 카페를 찾아 격려한 데 이어 오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

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 출신 박강빈 씨는 "지난 11월 발표된 지원 대책을 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어 참 감사드립니다"면서 "동등한 출발선을 저희에게 약속해 주신



만균 저희도 힘차게 출발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오찬 행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출신 성악가 겸 가수 모유진 씨와 역시 자립준비청년 출신 심리상담사인 조재문 씨의 오보에 연주 공연 등

전남도, 건강한 설 명절 위해 코로나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전라남도도가 설 연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코로나 19 동절기 2가백신 추가접종 독려에 나섰다.

전남도는 2023년 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고향 방문 과정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건강한 설 명절 보내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19 2가 백신은 최근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맞춘 백신으로 예약 없이 보건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즉시 접종할 수 있다.

구형 백신을 접종했을 때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의 개량백신은 오미크론에 맞춘 백신이기 때문에 효과가 탁월하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에서 BA.4/5기반의 2가백신을 접종한 집

단은 단가백신 접종 2개월 후 집단에 비해 73%의 추가적인 입원 예방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자는 12세 이상 기초접종(1, 2차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 중 기존 접종일 기준, 확진자는 확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도민이다.

백신 접종 후 효과가 있으려면, 인체 면역반응이 일어나고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통상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접종해야 하고, 늦어도 2023년 1월 첫 주까지는 완료해야 안전한 설 연휴를 보장할 수 있다.

문권옥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고, 실내 마스크 해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7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해명/기자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가 한눈에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나성웅)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직무대리 최웅선)은 2022년 12월 23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량광기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육상에서 즐기는 해양관광은 물론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아름다운 동해를 느낄 수 있는 해상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는 체계가 구축될지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웅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성지아/기자

경북도, 광역크루즈·국제 마리나네트워크 구축 나서

- 22일 경북 환동해 해상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유람선, 크루즈 등 활용한 해상관광 콘텐츠 개발
-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검토

경북도는 지난 22일, 환동해지역 본부 대회의실에서 「경북 환동해 해상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남·서해안과 비교해 해상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 동해안에 유람선, 크루즈 등을 활용한 해상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내외 해상관광 현황 및 동향, 경북 동해안 연안크루즈 사업화 여건 및 활성화 방안, 경북 마리나 거점을 활용한 해상관광 추진 등 연구용역 수행 결과 발표와 각 시군의 해상관광 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을 들어보고, 앞으로 경북의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의견 교환 및 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올해 울릉도 관광객이 역대 최대로 42만명을 돌파했고, 지난달까지 체험

객 100만명이 다녀간 스페이스워크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경북 동해안은 해양관광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또 후포 마리나항만 준공,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경주 선부역사공원,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해양관광 기반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연안크루즈 등 해상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경북의 해상관광은 울릉도 섬일주 유람선, 포항 동빈내항을 가로지르는 포항크루즈 정도로 선박을 이용한 관광콘텐츠는 매우 부족해 유람선, 크루즈를 이용한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한 해상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항시 운하관, 죽도시장, 여남항, 영일대해수욕장, 호미곶항을 유람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포항, 경주, 울릉 등 연안 시군과 강원, 부산 등 광역 연안크루즈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했다.

또 후포마리나, 형산강마리나 등 거점이 되는 마리나항을 활용해 요·보트 체험 등 해상관광과 러시아, 강원도, 울릉도·독도, 포항, 경주, 부산 등을 잇는 요트라인으로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는 풀빌라, 혼행, 힐링여행, 취미생활 관련여행, 자연경관 연계형, 건강·치유케어 등으로 변화하고 있어 해상관광과 해양레포츠, 힐링유람선 투어, 두바퀴 투어 등을 연계한 경북 해양형



웰니스 관광 모델 개발 등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 동해안에는 호미곶 국가해양정원, 문무대왕 프로젝트 등 새로운 해양관광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육상에서 즐기는 해양관광은 물론 유람선, 크루즈를 타고 아름다운 동해를 느낄 수 있는 해상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2023.1.14.(토) ~ 15.(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2023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2023.1.7.(토) ~ 8.(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 최: 국제산악연맹, (사)대한산악연맹
주 관: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총회'에 참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 시 환경오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인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

고 입법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이후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 등 추진현황, 2023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등을 의결했다.

고정화/기자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2022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 김시용 의원 참석하여 축하인사 전해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18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첫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관들의 졸업과 임용을 축하했으며, 이날 임용식은 신규 임용자와 그 가족,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계일 위원장은 "힘든 교육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며, "오늘 졸업하는 교육생들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리며, 미래를 위해 훌륭한 인재를 잘 키워주신 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고, 출동 현장에서 그들



안 같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임용되는 제76기 신입 소방공무원 653명은 지난 8월 22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18주(합속 12주·원격교육 6주)간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각 관서에 배치돼 5주간 관서

실습을 마친 뒤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현장 방문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시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김포3),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 이스포츠 대회 유치와 선수 육성 본격 추진한다

김동욱 의원, 역대 최초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e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 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 게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2년 1,844억 달러로, 2014년 1,234억 달러에서 49.4%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1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운영할 만큼 게임 중주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았으나 현재는 경기도, 부산과 비교해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이후에는 게임회사가 대부분 판교로 이전하면서 서울지역 사업체와 종사자가 대폭 감소한 상태다.

실제 국가통계포털의 국내 게임산업의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지역의 사업체는 4,836개, 종사자는 3만 9,661명이었으나, 2020년 기준 사업체는 2,184개(△55.1%), 종사자는 2만 6,628명(△32.9%)으로 감소했다.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육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스포츠 선흥을 위한 조례는 서울, 대구, 세종시만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게임산업이 가진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취약

한 국내 이스포츠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사업' 예산(당초 22억 8천 6백만원)을 10억원 증액해 33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확대된 예산은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프로그래머 처우개선, 세계적 규모의 이스포츠 국제대회 유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욱 의원은 "제가 역대 최초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게임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서울경제의 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이용호 의원, 행안부 2차 특별교부세 62억원 추가 확보,

금년에만 역대 최대 총 150억원 확보해 숙원사업 속속 해결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지역 숙원 사업 해결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 한 해 동안 확보한 특교세만 총 150억원으로 이용호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 총 최대 규모다.

남원시는 △남원 청년상생 문화공간 조성사업 9억원, △남원터널 내진보강공사 5억원, △원천천 정비공사 8억원 등 총 2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이번 확보한 예산으로 내벽 타일이 떨어지던 주생 남원터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원천천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자,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자활기업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공유 공간과 가

족 공유공간을 조성해 지역 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붕어섬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4억원, △오수 장방소하천 정비사업 9억원, △신덕 세천 정비사업 3억원, △오수 도통소하천 정비 4억원 등 20억원을 확보했다.

임실군은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신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던 오수 장방소하천, 신덕 세천, 오수 도통소하천을 정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광암제 등 6개소 준설사업 8억원, △용암2제 보강공사 6억원, △동계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6억원 등 20억원을 확보했다.

순창군은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유효저수량이 감소한 6개 저수지(광암제, 백암제, 만수제, 역대골제, 호계제, 소촌제)를 준설해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용수로가 파손되고 누수가 확인된 인계 용암2제를 긴급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복지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1차, 2차 행안부 특별교부세 모두 대규모로 확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남승/기자

울진군의회·은평구의회 자매결연 협약 맺다!

양 의회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울진군의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의회·은평구의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북 울진군의회와 서울 은평구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울진군의회가 주관한 이번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의회 의원, 손병복 울진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 의회 의장이 양 의회간 협력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양 도시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교류 활성화, ▲주요 행사에 대한 상호 초청교환 방문, ▲교육·세미나 공동 실시 제안 등 상호 우호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다.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은 "올해 울진대형산불 때 전국각지에서 국민들과 자매결연의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성금·구호물품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으로 울진군민들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셨다"면서 "오늘 울진군의

회와 은평구의회와의 자매결연으로 양 의회의 상호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아픔을 나누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류석 · 청소년책임보호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강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내년에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 예정...시민들의 제보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강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금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강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금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강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강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강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통전세 불법중개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건설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고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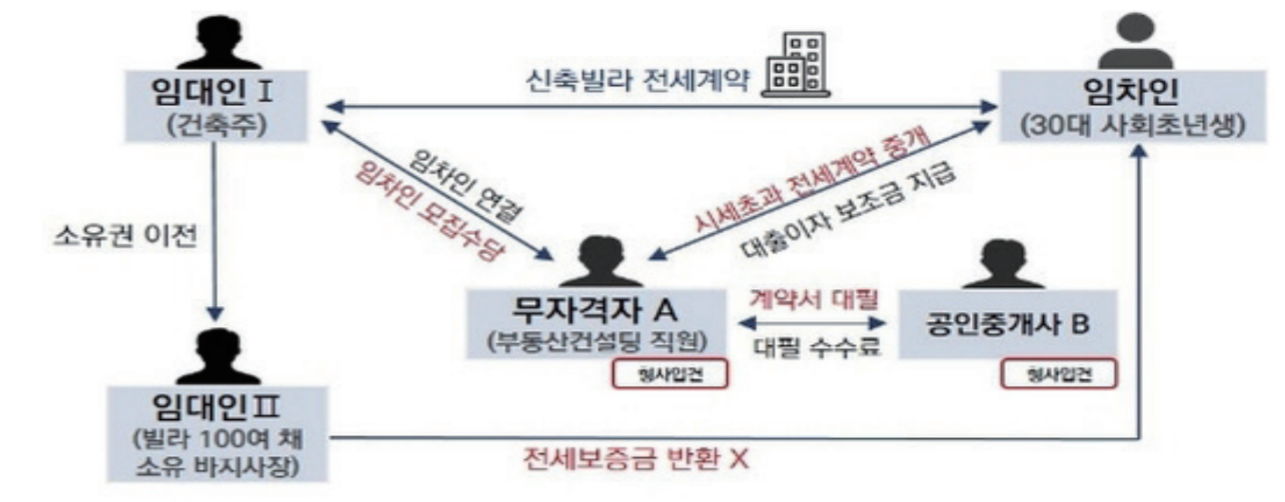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행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전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강통주택은 전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전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 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



을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려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을 지니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강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강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강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울 중구, 사회서비스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서울 중구가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사회서비스분야 공모사업 '주민참여형 부문'에서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간병, 가사, 간호, 보육, 노인수발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민간기업 참여가 부진하여 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지난 3년간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돌봄 및 발달장애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및 어르신 대상 먹거리 나눔 등 주민 스스로 돌봄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2022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 '청구동 더함께 돌봄사업단', '멋진날 사회적협동조합' 3개의 주민단체가 참여해 성인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아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건강한 밥상 나눔 사업 등 총 304회에 걸쳐 2,564명의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는 발달장애인 직능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공간지원 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주민단체와 함께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여 2023년 사회서비스분야 컨소시엄형 공모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돌봄을 실천해 온 주민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서초구 반포천 겨울밤도 이제 아름답고 안전하다.. LED 갈대 '만개'

서초구의 반포천은 봄에는 벚꽃,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으로 멋을 뽐내는 구민들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다. 하지만 겨울철은 어둡고 다소 삭막해 구민들의 발길이 줄어든다.

올 겨울부터는 반포천의 밤이 어느 계절처럼 밝아질 전망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갈대들이 '만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2일, 반포천 산책로 일대에 LED 특수 조명을 활용한 갈대숲을 조성했다.

광섬유 재질로 만들어진 LED 갈대숲은 창포와 갈대를 모티브로 하여 반포천의 자연조경과 어우러진 점이 특징이다. 또, 일몰 이후 어두운 반포천을 걷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셉티드(범죄예방디자인)를 적용했다.

이번에 만든 LED 갈대숲은 △은

은하게 빛나는 '창포갈대', △포근하게 빛나는 '방울갈대', △투명하게 빛나는 '광섬유갈대' 등 3가지 종류로 1,100여개의 야광 갈대로 꾸며졌다. 설치구간은 반포천1교 인근, 수필가 피천득을 기념한 '피천득길' 일대 2개소다. 자동조도센서를 통해 정밀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운영한다.

구는 이번 LED 갈대 조명설치로 반포천을 아름답게 꾸미고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흙콘크리트 포장길, 황토볼길, 세족장 등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산책길'도 만들었다.

기존의 콘크리트 질감의 차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마치 숲길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했다.

한편 구는 올해 안전한 반포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폭우 시 갑자기 불어오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IOT를 활용한 원격차단 시스템을 설치했다. 작동원리는 반포천 수위가 높을 경우 차단문이 닫혀 비상방송도 송출한다. 이후 구청 재난종합상황실 CCTV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12곳의 차단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향후 구는 새로 설치된 시설물의 주민반응을 보고, 만족도가 높으면 향후 확대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LED갈대숲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반포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송파구 '가락시장 정수탑' 2023년 공공미술로 재탄생한다!

송파구 '가락시장 정수탑'이 2023년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서울은 미술관' 사업은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공모를 통해 발굴한 장소를 새롭게 바꿈으로써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노들섬 달빛노들, 용마포공공원 타원본부, 유진상가 하부 통제유연, 서울역 주차램프 도킹서울 등이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대표 사례다.

송파구 '가락시장 정수탑'은 1986년 지하수 저장 용도로 세워졌으나 2004년 정수공급방식의 변화로 약 20여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장기간 방치돼 시설물 외관 노후화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쓰임과 감동이 있는 도심 속 예술명소를 조성하는 '서울시 미술관' 대상지 공모는 구에게 특별한 기회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가락시장 정수탑'은 서울시 동남권 생활권역 중 최초의 '서울은 미술관' 사업 대상지가 됐다. 2023년 1년 간 시비 14억 원을 투입해 공공미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며, 2024년부터는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락시장 정수탑'의 위치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제3권역에 자리하고 있어, 조성 구간 중세부 사업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구는 민선8기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력해 가락사거리 가로녹지대 조성 사업까지 추진하며, 가락시장 정수탑 일대가 예술작품을 통한 감성적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공미술 대상지로 선정된 가락시장 정수탑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지 아주 기

대된다"면서 "공모 사업을 시작으로 송파의 얼굴인 송파대로를 구간별 특성을 살린 명품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금천구, '금천 나눔의 전당' 현액식 개최

기부자 뜻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위해 '금천 나눔의 전당' 현액식 개최

금천구는 12월 22일 2022년 금천 나눔의 전당 현액식을 개최했다.

'금천 나눔의 전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1월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했다.

현금은 개인 3천만 원, 기업·단체 5천만 원 이상, 현물은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기부 약정을 한 경우 등재 대상이 된다.

금천구는 그동안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 온 금천구의사회, 에이스하이엔드3차 입주자대표위원회, 롯데지알에스(주), 오베론 디자인(주) 대표이사 김순영을 금천 나눔의 전당에 새롭게 올렸다.

금천구의사회와 에이스하이엔드3차 입주자대표위원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현금 5,467만 원과



5,417만 원을 기부했다.

롯데지알에스(주)는 2021년부터 현물 1억 1,175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3,000만 원을, 오베론 디자인(주) 대표이사 김순영은 개인 기부자로서 현금 3,150만 원을 현재까지 기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악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는 기부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나눔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뜻이 금천 나눔의 전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오광환 체육회장 당선인 축하하고 낙선자 위로

당선인과 낙선자들이 힘 모아 체육회 발전시켜주길 당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용인시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오광환 후보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양항운·김도준·이한규 후보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광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오 당선인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체육회를 발전시키고 용인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오 당선인이 낙선한 세 분의 후보들과도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해주실 걸로 믿는다"며 "낙선한 후보들의 선전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낙선 후보들도 용인의 체육발전을 위해 된 만큼 오 당선인을 도와주시길 기대한다"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승복의 미학을 발휘하셔서 용인 체육의 미래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오 당선인을 도왔던 L씨가 시장을 거론하며 득표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L씨 언행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다소나마 훼손됐을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이 맞다면 L씨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장 선거 때 제 캠프에서 활동한 L씨에게 '체육회장 선거에서 시장이 오해받지 않도록 중립성을 지키라'는 뜻을 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L씨가 신중치 못한 처신을 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로 출범할 체육회의 모든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체육회가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체육회 운영을 올바르게, 예산집행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도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로 출범할 체육회의 모든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혜영/기자

인천시 이민 120주년, 그날의 물결 굽이쳐 흘러 다시 인천으로!

이민 120년 역사 재조명하고, 역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설계

인천광역시시는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과 방문단이 지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120년 이민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선대가 걸어 온 애환을 회고했다고 밝혔다.

하와이는 우리 민족의 공식 이민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따뜻한 날씨와 힘들지 않게 일하고 금화로 품삯을 받는다는 그럴듯한 소문에 이민을 결심한 121명이 제물포항 잔교에서 작은 배에 나누어 몸을 실은 것이 꼭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2일이다.

121명 중 8할이 넘는 수가 제물포, 강화, 부평, 교동 출신의 인천인이었다. 그렇게 정부 승인에 따른 첫 공식 이민이 인천사람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시작됐고, 이 중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사람은 102명이었다. 19명은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시작으로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415명의 선조가 하와이로 이주해 대부분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갔다. 힘들고 쓰라린 첫 이민의 경험이었지만 이들로 인해 우리 민족의 해외 이주 역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에서 한 달 15~17달러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와이 곳곳에 학교를 설립해 국어 교육에 힘썼다.

또, 여러 단체를 설립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에도 발 벗고 나섰다. 훗날 이곳은 해외 민족 운동의 거점이자 독립운동의 지원본부가 됐다.

유정복 시장 일행은 가장 먼저 인하공원을 찾아 대한민국 이민역사

가 시작된 인천과 하와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으며, 120년 전 인천을 출발한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우리 이민자가 처음으로 밟았던 하와이 땅, 호놀룰루 항 7번 선창도 방문했다.

이어, 한인합성협회 회관을 찾아 선열의 노고를 기렸다. 1907년 9월 2일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24개의 민족단체를 통합해 결성한 한인합성협회는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공립협회, 대동보국회와 통합하면서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면서 미주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 자금 모집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고된 이민자에게 위안이 되어 준 미주 최초의 한인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도 방문했다. 1903년 11월, 인천 내리교회 권사이며 통역 요원으로 첫 이민선을 타고 온 안정수 등이 작은 방을 빌려 첫 예배를 시작한 것이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100주년 기념해 1998년 새로 세워진 지금의 성전 안의 내리 체플도 인천의 내리교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유정복 시장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등이 잠들어있는 국립태평양기념묘지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참전용사와 순국선열들을 추모했다.

한편, 120년이 흐른 지금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는 약 1만 7,900명으로 하와이주 이민자 가운데 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과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유정복 시장이 하와이 시민들과

동포들에게 갖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각별하다. 지난 10월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 역사의 시작점인 인천에 당연히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상징성을 부여하고, 재외동포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이 재외동포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중심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1954년 '더 이상 가난을 후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한인 기독교원의 매각 대금을 기부해 인하공과대학의 설립을 발원한 것이 이민자들의 첫 번째 귀환이었다면, 2003년 인천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인천에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 두 번째 귀환이라 할 수 있다.

120년 전 겨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처음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을 다시 따뜻하게 품고, 세계 193개국 732만 여 재외동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기관의 동지를 인천에 만들어 담대한 한민족 이민역사의 귀환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유 시장의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민 120년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등 역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념사업 뿐만 아니라 상징 조형물 제작 등을 통해 더 큰 세계도시로 나아가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개장 및 개장축하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페스타, 푸드트럭 먹거리존, 산타마을 캐릭터 파티, 인생네컷 사진관, 산타 썰매

경상북도 | 봉화군 | KORAIL 경북본부 | 봉화축제관광재단

오산시, 내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6.4%로 인하 안내

오산시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 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연납을 통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시흥시, 국토부 주관 '주거복지대상'서 우수지자체 2년 연속 선정

시흥시는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제2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장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제도, 추진실적을 평가해 주거복지 분야에 기여하며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우수지자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전국 10개 우수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21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제18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시흥시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 및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복지 추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흥시는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본조례의 선도적 제정으로 '시흥형 집수리지원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차지원사업' 등 지역 맞춤형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자체재원을 확보해 국가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보다 대상자를 확대(중위소득 80%)해 아동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월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흥형주거복지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주거복지분야 선도 지자체답게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우용/기자

[용인특례시] 양지면 골목길 주민들 눈치우기에 구슬땀 흘려

양지면 양지7리(이장 조혜영)는 지난 24일 영하 10도 넘어 거리가 꽁꽁 얼어붙은 추운 날씨임에도 이장과 부녀회장등 주민들은 눈치우기에 땀을 흘려붙였다.

이곳 양지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없는 관개로 경치가 좋고 도시화 되고 있지만 맑은 공기로 인하여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주 폭설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려 인도와 골목길 그리고 작은 소공원은 소복이 쌓여 있는 눈이 얼어붙어 바닥은 유리알 같이 반들반들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걸어보지만 쌓인 눈은 쉽게 녹지 않았다.

주민들은 밀데와 삽 그리고 갈구리

를 가지고 나와 얼은 눈을 깨며 밀데로 밀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조각한조각 얼어붙은 눈을 걷어 내니 금세 바닥은 제모습이 보이고 그위에 영화갈음을 면사무소에서 구해 뿌리고 나니 사르르 녹는 것을 보고 여러사람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함께한 주민들은 우리가 이렇게 뭉치니 드디어 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였다.

조혜영이장은 수십년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이렇게 추운날씨에 주민들이 눈치우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열어

창업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미래진로교육의 한 형태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 안산 엠블던호텔 루시아홀에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부터 정책연구로 진행한 '초·중·고 학생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창업교육 모델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교육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결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책임연구자 구자역 서경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 결과 발표에서 창업교육을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진로교육의 한 형태로 보고,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와 도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엽가 정신 함양이 중요하다는 점과 실제적인 창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체험교육, 기술 창업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안착, 가이드라인 개발, 중장기적인 경기도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로전담교사, 학교 창업교육 업무담당교사,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진로교육 측면에서 창업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연구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형 창업교육정책 발굴에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진로교육에서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는 급변하는 진로직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 자리가 경기도형 창업교육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김진경 진로직업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거점학교 및 거점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도민 안전 위해 연말연시 축제·해맞이 행사등 안전점검 실시

도, 23일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3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과 연말연시인 만큼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행사장 참여 인원 동선 관리, 안전통제선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은 물론, 행사 개최 중과 종료 후 참여 인원 분산 등 상황관리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지역축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14개 시·군 16개소로 시흥시 제야의 종 타종식, 팽택시 팽택호 해맞이, 남양주시 봉선사 타종식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행사장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남한산성 해맞이와 같이 주요 명산, 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시군 전담부서와 경찰서, 소방서에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함께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함께 가동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소비·투자분야 재정집행 추진을 위한 도-시군 간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오 부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 지방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마지막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3일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염 의장은 18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소방공무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600여 명에게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라며 "국민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자신

의 건강에 소홀함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는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임용식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활동 동영상 시청, 임용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임용 선서, 인사 말씀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선희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시의회 내년도예산 어이없는 삭감에 "망연자실"

안성시의회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1조 6,896억여원중 총 35개 부서 721개 사업 392여억이 삭감되었다.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는 청년.경단비, 일자리, 진로교육, 농촌협약인건비, 안성시 장기대회, 문화공연 및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있는 생활체육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사업 반도체산업육성전략, 아동친화도시구축, 문화도시2.0 조성사업, 건강한아침 전원식당, 농업종합행정타운,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조성, 청년내일캠프, 안성시 시민감사관운영, 버스라운지 및 스마트 승강설치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의안은 맞춤형지원, 행정서비스제고, 도시공사 설립및운영 조례안, 도시공사 자본금출자 동의안,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공영마을버스 사업운영안등을 미상정했으며, 안성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다.

도시공사

- 미상정
 - 안성시안성도시공사 설립및운영 조례안
- 미상정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미상정
 - 안성도시공사 자본금출자 동의안

공영버스

- 미상정
 -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사업운영 조례안
- 부결
 -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특히 법적의무사항으로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수립 예산은 상위법에 따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의원(총 8명/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들은 상위법조차 지키지 않고 전액 삭감으로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약속이자 시민이 선택한 사업마저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목잡기라며, 의회가 막무가내식 삭감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 시민들에게 돌아가며 시민을 불모로 한 예산삭감은 의회의 힘 겨루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투엔광성을 방문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베트남 투엔광성 인민위원회의 정식 초청으로 총 8명의 연수단 비용이 855만원이 소요되며, 안성시의 자매우호 협력도시인 투엔광성의회등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성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시민들의 안성시의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성시민들은 안성시의회 게시판에 지난16일부터 23일까지 13건의 의견에 대한 1,0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

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안성시의회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첨부하면, 안정열 의장을 비롯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시 예산 삭감으로 멀쩡히 운영하던 서안성체육센터 강습 축소 및 직원 해고,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당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시의원들, 안성시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 묻고 싶다.

정말이지 소중한 안성시민의 세금을 의회권력이라는 공공권력을 사익

화 하는건 아닌지 심히심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의회가 존재 이유는 뭘니까? 지금 하는 의회 활동이 안성 시민을 위한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18만 소도시에서 의회 권력 잡은 후 니편 내편 가르면서 유지하게 골탕먹이는 정치가 지방선거 출마 목적이셨습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시민들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디 발할 수 있는 안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혜영/기자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가족부 인증,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 유지

수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올해는 40개 지자체에서 지정 신청을 했고, 25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됐다. 필수지표에 대한 정량평가(1차), 선택지표에 대한 정성·정량평가(2차)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번 지정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수원시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고, 2015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와 선택지표 사업으로 ▲성인지 업무 전담 인력 운영 ▲여성 일자리 협업체 운영 ▲마을안전이야기 제작 ▲성평등 소통공간 '채움터' 운영 ▲성평등 정책 파트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수원특례시가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가 됐다"며 "수원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도 성평등 수원특례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재정분석 부문 최우수상

22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9천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

화성시가 탄탄한 재정능력으로 22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재정지표로 평가했다.

이에 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시-1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획득했다.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흑자재정으로 전환한 시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인 1.94%보다 월등히 높은 6.42%를 기록하며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자랑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비 절감 노력을 펼치면서 지방보조금 비율 증가 억제, 지방세



정수율 증가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경상경비 절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

양시현/기자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발전 공동선언 및 민선8기 일자리대책 비전 선포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발표

광명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민정 상생발전 공동선언과 민선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채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때일수록 노사민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역의 경제 및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기업인, 노동자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 노사민정 상생발전 공동선언식, 민선8기 일자리 대책 비전 선포,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노사민정 상생발전 공동선언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경기 침체와 고용시장 극복을 위한 노력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문화 정착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유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사업 발굴 지원 등 광명시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민선8기 일자리 대책 비전인

'미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6대 추진전략과 14대 핵심과제에 따른 102개의 사업을 담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용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역점사업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 참가, 정책제안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특별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민선8기 임원진 선출 후 시·군별 제안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간의 균형있는 공업지역 물량배정을 요청했다.

자유로는 주요 간선도로 중 전시간대 교통량 상위 10%의 상습정체지점이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요소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업지역 총 물량의 0.6%에 불과한 근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한다



는 취지이다. 이번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정책제안은 경기도·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수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물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경북도, 국비 11조원 확보...역대 최대 성과

- 영일만횡단구간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등 속원 SOC 대거 반영
- 메타버스, 혁신원자력 등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산업위기 지정 관련 사업예산 반영으로 포항 경제 회복 기대
- 경북도, 국비 11조원 확보로 예산 12조원 시대 열어

국비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

<도표#1>

구분	계	SOC	R&D	농림수산	문화	환경	복지	기타
예산	109,514	29,373	6,960	15,881	2,927	8,315	38,090	7,968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0조 9514억원이 반영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0조 9514억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설사업 5조 8510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100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도에 확보한 10조 175억원 보다 9339억원(9.3%) 늘어난 역대 최대 국비확보 규모이다.

도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국책 건의사업 5조 6029억원을 반영했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481억원을 증액시켰다. 이번에 확보된 분야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아래 <도표#1>과 같다. 위 <도표#1>과 같이 2023년 도가 확보한 국비예산은 지역의 열악한 도로·철도망 개선/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SOC 사업, 경주에 건립 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문무대양과학연구소)을 중심으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사업, 포항 '힌남노'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관련 사업과 메타버스 관련 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도의 속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문경·상주·김천선 연결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추역할을 할 새로운 철도 교통망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572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786억원, 동해선 전철화 155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 1355억원 등의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45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1억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105억원, 원자력 공동캠퍼스 1억원 등 혁신원자력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경북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원자력 관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경주에 건립 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은 향후 국내 혁신원자력 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에 대한 특별 경영안정자금 1126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물류 플랫폼 구축·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사업 100억원, 산단 빛물 펌프장 설계비 5억원 등 1,231억원이 반영돼 향후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에 큰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천명한 경북도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류메타버스 전담 조성사업 2억원,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5억원, 한류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5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돼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 정책에 힘이 실렸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 56억원,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61억원, 경산 창업열린공간 조성(스타트업파크) 61억원 등의 계속사업과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10억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조성 20억원,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원,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3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48억 등 신규사업 109건 2,809억원이 대거 반영되어 경북의 미래 성장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울진에 들어설 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우주를 넘어 심해로>라는 심해연구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비 확보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동해안권 블루카본 관련 연구·교육·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 국비 확보를 위해 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행정·경제부처, 실국장 등이 수시로 관계부처, 기재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는 지난 10월부터는 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실에 국비지원 캠프를 설

치하고 국비확보 전담팀이 상주하며 실국의 국비확보 활동을 지원했다. 또 힌남노로 인한 산업위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김병욱 의원실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된 이후에는 대구경북 유일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경북의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증액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도는 지난 12일, 도의회의 의결로 국비 예산확보를 포함해 12조 821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을 확정 지었다. 이는 전년 대비 8294억원(7.4%) 늘어난 것으로 경북은 전국 도 단위에서 최고의 증가액을 기록하며 예산 12조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3년 국비 11조원 확보는 연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합심해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도와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어렵게 확보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혁신원자력,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 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예천장터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판매

명품 곶감의 고장 예천 은풍준시 등 판매

설 설맞이 예천장터 이벤트
2022. 12.12 ~ 2023. 01.24

종목별할인 & 10+1 이벤트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3,000	5,000	10,000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00	40,000	

5%~최대 20% 할인

예천군은 다가오는 새해 2023년 1월 24일까지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예천장터'를 통해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 판매 행사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들에게 4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구매 금액별 즉시 할인쿠폰 제공, 10+1 덤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기름·들기름, 한과·떡국·잡곡세트, 건강식품, 사과·배·은풍준시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예천장터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가족과 지인

들에게 설날 선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입점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을 직접 찾아가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입점 농가에는 권석진 농정과장이 격려와 함께 최고의 농·특산물을 예천장터 이용 고객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는 손편지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 예천장터에 입점한 은풍준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작목반 회원들 손길이 분주하다."며 "세찬 바람과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올 해는 어느 때보다 품질이 좋아 예천장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진 농정과장은 "이번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천장터 이용 고객들 만족을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경북도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

- 경주시, 식품위생분야 3년 연속 6개 수상 쾌거



경주시는 경북도 주관 '2022년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경주시는 정부 부처와 경북도 등으로부터 식품위생분야 6개 상을 수상했다. 앞서 경주시는 ▲2020~2021년 경상북도 주관 식품·공중위생 관리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2021년 농림식품부 주관 안심식당운영 전국 1위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3년



연속 수상 쾌거를 이뤘다. 올해 평가는 경북도 주관 식품·공중위생 시책과 우수사례 등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경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운영실적 ▲식중독 발생 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점검 등 적

극적인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병철 경주시 식품안전과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울진군,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울진군 가족센터와 울진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1일, 울진군평생학습관에서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적취득 지원사업은 울진라이온스클럽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귀화신청 시 발생 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22년 기준, 총 73명에게 후원금이 전달되었으며 관내 결혼이민여성 국적취득자 133명 중 약 54%(73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장철 울진군 가족센터센터장은



은 "국적취득지원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귀화 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울진라이온스클럽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2022년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수상

의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사업추진실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7개 분야 2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평가 결과 전국 95개 지자체 중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의성군은 귀농인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교육, △1:1멘토멘티 기술교육, △영농체험현장학습 등 전문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초보 귀농인의 농업경쟁력을 높였으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이사비용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영농기반조성사업



등 귀농인의 농업기반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귀농정책과 전문기술교육으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 경북 23개 시군 중 3위 차지, 코로나 이후 3년만의 훈련에서 거둔 쾌거

영양군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 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영양군청사 지진·화재 복합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하여 군청 및 유관기관, 민간인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한 해당 훈련에 대해 경상북도는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양군은 그 중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영양군은 이번 훈련에서 특히 기관 간 교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적극 활용해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고, 보건소 및 영양경찰서, 영양119안전센터, 안전한국훈련체험단 등 각 기관 및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었으며, 훈련 평가 우수기관에 수여되는 포상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군청과 각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군은 비교

적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결실이 이번 훈련을 통해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영양군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보건의료원 의료진 위한 새로운 숙소 마련

청송군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 신축 준공식 개최

청송군은 지난 12월 23일, 청송군 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에서 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원장의 의료진숙소 건립사업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청송군은 질 높은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전문 의료진을 유치하여 농촌의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년 10월부터 '22년 11월까지 1년여 간 총 사업비 55억 8천여만원을 들여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를 건립했다. 입주대상은 공중보건기사 및 청송의료원정소병원 의료진과 신규공무원들이며, 유형별 타입으로 A타입:14세대(원룸/9.6평), B타입:10세대(원룸/13.5평), C타입:4세대(투룸/17.6평), 휴게실:1실(68.47㎡/20.7평), 관리실 및 기사실:1실(44.7㎡/13.5



평) 등 총 28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 A타입은 원룸형으로 신규공무원들이 활용하고, B·C 타입은 거실겸 주방과 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이루어져 의료진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축 의료진숙소는 설계 공모를 통해 이국적인 세련됨을 강조하여 심도 있게 신축 되었고, 쾌적한 주변 환경은 물론 질 높은 주거환경 보장으로 유능하고 우수한 전문 의료진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폭 넓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보건의료원 의료진숙소는 의료종사자들의 복지증진에 있어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한민국 제1호」 통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 개최

- 야간관광 브랜드 "TONIGHT, Tong Yeong" 선포

-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글로벌 야간관광도시 도약 목표

통영시는 「대한민국 제1호 통영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을 12. 22.(목) 17:30,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대한민국 제1호(성장지원형)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에 따른 통영시·한국관광공사·경상남도 간 상호업무협약식 및 커팅식, 통영시 야간관광 브랜드·비전 선포 및 사업 소개, 통영시의 스토리가 담긴 AR 드로잉 퍼포먼스 및 국악그룹 이상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통영시는 앞서 10차례, 2,729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 조사를 실시하여 "투나잇, 통영(오늘밤, 통영)"이라는 통영만의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야간관광 및 야간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글로벌 야간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 야간관광 특화 프로그램으로 강구안 나이트 프렌지 및 강구안 다이닝 항구 워크가 있으며, 시는 강구안 일원 통영만의 특별한 수상무대를 설치하여 오스트리아 브리겐트와 같



은 통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명품 야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상택시, 유람선 외 수륙양용버스 및 해상케이블카를 도입하여 통영시 야간 여객상품을 다양화하고, 강구안 상공 라이트쇼 및 통영의 문화예술을 결합한 드론 나이트쇼, 통영 전통 자개 문양과 빛을 활용한 조명 디자인 마련 등을 통하여 강구안 나아가 통영시 전역을 야간관광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디퍼랑을 넘어 인근 강구안 일대까지 야간 관광을 확장하여 불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세계적인 관광지 통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영 야간관광 브랜드인 「TONIGHT, Tong Yeong」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기념으로 12. 23.(금) 「2023 ~ 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디퍼랑에서 관광객 대상 특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준/기자

봉화군, 잔류농약·수질 분석 정확성으로 우수성 입증!

영국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탁월한 분석능력으로 소비자 신뢰도 높여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영국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국제공인 비교숙련도 평가 프로그램(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야, 수질(용수)분야 분석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함을 입증받았다.

FAPAS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실시하는 수질, 식품 잔류농약, 영양 성분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 매년 3,000여 개 분석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양배추, 감자) 2개 분야와 수질(시

안)에 참여해 잔류농약검사에서는 28가지 농약성분 중 EPN(이피엔), Tetradifon(테트라디폰) 성분은 '0.0'을, 다른 대부분의 성분에서도 우수한 결과(±1)로 평가를 받았고 수질 중 시간 검사에서도 Z-Score '1.4'를 기록해 분석 평가의 정확성을 입증받았다.

Z-Score란 FAPAS 평가에 참여한 실험실 간 오차 범위를 산출한 것으로 ±2.0 이내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적합한 결과로 판정하며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매우 정확함을 의미한다.

2012년 설립된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5,000건 이상의 토양검정, 용수, 잔류농약,



가축퇴액비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고 분석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국내외 분석능력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가해 잔류농약, 수질 및 토양검정 분야에서 11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장달호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 및 국외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입증받았으며, 화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협력·상생의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 워크숍 개최

전남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및 상호 협력 강화

경북교육청은 지난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전남교육청과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교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북과 전남의 교육감, 국장, 교육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의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경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문화교류 증진 △우수 교육 프로그램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체제 구축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교직원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교류 확대 △양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작은 학교 지원 정책, 디지털 전환 등의 현안 문제를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의 23개 교육지원청과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이 상호 교류 협약을 추진하고 학생 체험학습,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상호 교류에 따른 교육시설 지원 등 학생의 교육 활



동을 중심으로 영호남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남교육청과 교육 교류 증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영호남의 지역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다음 세대는 협력과 상

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

- 이만규 의장, "공정과 원칙을 지켜달라"건의

-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등 주요 현안 건의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은 22일(목)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규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대통령을 비

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의원 1보 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 다뤄졌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하며 "대통령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 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라고 건의드렸으며, 대통령께서는 이에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온라인 영덕대게축제 'O2O', 작년 이어 대히트 행보

로블록스 메타버스 축제 시작부터 문전성시...글로벌 축제로 도약

제25회 영덕대게축제가 'ON' 누리에 퍼지는 영덕대게의 참맛'이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영덕문화관광재단 공식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로블록스 플랫폼을 통해 펼쳐진다.



또한, 경상북도 대표 온라인축제인 영덕대게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로블록스 대환장파티'가 오는 31일 자정부터 새해 1일 07시까지 진행돼 세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재료를 소재로 쿡&먹방 컨셉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또한, 영덕대게 온라인 경매가 이뤄지는 '어서옥션'은 제철 살이 꽉 찬 최고품질의 영덕박달대게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즐길 수 있는 '대게줄당기기'와 '영덕대게축구'에는 영덕군민이 함께 참가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명 유튜브와 아프리카TV의 인기 BJ들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영덕대게의 맛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덕군 9개 읍·면 특산품을 추천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해당 특산품들은 영덕해산물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토어팜 온라인 물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장문화/기자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박오수위원장은 "온라인 영덕대게축제는 로블록스, 유튜브, 네이버라이브 등 다채로운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해외 네티즌들의 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3개 국어 지원과 특색있고 고유한 콘텐츠를 통해 영덕대게축제의 매력이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와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주관하며, 영덕군이 후원하고 있다. 축제 참여 방법은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https://crab.ydfesta.kr/k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 행정안전부 장관상 및 특교세 인센티브 9000만원 수상
-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망라 최우수 평가,경남에서 유일한 성과

남해군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방재정분석 종합 최우수 상장 및 특별교부세 9000만원'과 단체기 수치를 수상했다.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은 재정분야의 권위 있는 행사로 지방재정의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공이 큰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주재했으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10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3개 단체), 재정분석 우수단체(4개 단체) 등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전국 17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남해군에서는 장충남 군수를 대신해 노혜영 부군수와 기획조정실 담당자들이 참가했다.

남해군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



재정환경변화 예측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부터 지방채 발행 없이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채무관리 지표 0%(전국평균 7.06%), 지방채납액관리비율 0.10%(전국평균 0.92%) 등을 기록했으며, 재정운용 성과가 높게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인센티브 9천만원을 수상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준/기자

박형준 시장, 루마니아 고위급 인사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당부

부산시, 루마니아 대표단 초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전개



부산시는 지난 22일, 루마니아 대표단을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시-루마니아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한한 루마니아 대표단은 이온-마르첼 치올라루 루마니아 하원 의장을 비롯해 총리, 상·하원 공동 국가안보 상임위원회 위원장, 루-한 의원 친선협회장, 교통·인프라부, 국방부, 경제부, 교육부 장관, 주한루마니아 대사, 국영원자력공사 사장 등 다수의 정·재계 고위급 유력인사로 구성됐다.

시는 부산으로 초청한 루마니아 대표단을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해운대구 파크아파트호텔에서 환영 오찬을 가졌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국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력 고위급 인사가 방한한 만큼, 박형준 시

장이 직접 환영 오찬을 주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홍보 활동 등을 펼쳤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세계 2위의 활적한 부산항과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 간의 협력 확대, 부산 지역기업의 루마니아 진출 등 부산시와 루마니아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에게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부산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면서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환영 오찬이 끝난 다음, 루마니아 대표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인 대한민국 부산의 시내 일대를 둘러보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역량을 직접 체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루마니아 대표단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지로서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과 역량, 그리고 부산시민의 유치 열망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고위급 인사를 개최후보지인 부산으로 초청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을 위한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을 위한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갖는 등 유럽권 유치 기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2월 1일 불가리아 소피아시와 유럽도시 최초로 우호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럽 도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종진/기자

안동시, 에이스 기업 발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다

에이스 기업 2개사 선정,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안동시는 명인 안동소주(대표 박재서)와 (주)영동농기계(대표 김이한) 2개사를 2023년 안동시 에이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안동시 에이스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업력·매출·기술력·근로복지 및 지역사회기여도 등의 요소를 평가 선정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에이스기업으로 선정된 명인 안동소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로 지정(농축산식품부)

받은 명인이 만드는 정통 증류식 소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주 제조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며, (주)영동농기계는 농민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농기계 개발에 힘쓰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우대하여



지원하고 안동시 및 경상북도 기업지원사업에 우선 추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3년간의 인증기간 중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시정 홈페이지, 전광판, 까치소식 등에 해당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안동시 에

이스기업 선정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뿐만 아니라 경북도 프라이드기업, 산자부 월드클래스 기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케이메디허브, 산업부 과제 성과발표회 개최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15일, '2022년 산업부 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 화기만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의 1차년도 통합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의료현장과 재단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국산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및 임상 현장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연계하여 참여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제품의 인허가 및 보험 등재를 통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임주기업인 세신정밀과 우스트와 함께 1차 제품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차 제품화지원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내시경 수술용 전동식의 료용핸드피스 및 CT 다중 조영제 자동주입기 기술개발을 지원될 예정이며, 과제의 최종목표는 개발제품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보험등재 신청까지이다.

금번 통합성과발표회는 케이메디허브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동으로 1차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참여기관의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2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또한,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제품의 개발에 인허가 및 시장진출을 위해서 특허 확보 및 방어전략, 국내외 인허가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성과 발표회는 참여기업의 제품화 단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뜻

깊은 자리"라며, "규제 대응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재단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소방, 겨울철 캠핑족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사항 안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독려에 나선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질식이나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원주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던 30대 여성이 숨지고, 남성 2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질식으로 인한 119신호 건수는 471건에 달했고, 같은 기간

화재 신고도 145건이 접수됐다.

특히, 겨울철에는 캠핑장에 난방용품 사용하는 등 질식과 화재 위험성이 높고, 지역 캠핑장이 주로 산림지역과 인접해 있어 산불 위험성이 커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겨울철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텐트 설치 전 주변 소화기 위치 확인

▲불을 피우기 전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치우기 ▲난로를 피우기 위해 연료를 사용한다면 위험물 운반용기 위험물 주의사항 표지 부착 ▲일산화탄소 예방을 위해 잤은 환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이다.

대구소방은 오는 26일(월)부터 2월 말까지 오토·일반 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핑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문과 위험물(등유) 운반용기에 부착하는 주의사항 스티커를 배부해 이용객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캠핑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호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조리·난방 등 캠핑용품은 작은 부주의에도 급격한 화재나 질식 위험이 높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한 캠핑을 위해 캠핑장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당부

2023년 국가예산 확보 마무리 및 후속조치 주문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대설·한파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설물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 성과가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예산 전과정을 다시 살펴 보완·혁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한,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8.4%(7,613억원) 증가한 9조 8,618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일본 세일즈 외



교에 따른 분야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한인 상공인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국제교류센터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완주군, 400억 원 규모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최종 선정 대어 낙았다

완주군이 만경강 친수공간 조성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온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대어(大魚)를 낙았다.

유희태 군정이 공을 들여온 이 사업의 선정으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어 완주 제2의 부흥기를 열어가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도 탄력적 추진이 크게 기대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1차 관문인 전북도 평가위에서 1순위로 통과된 데 이어 환경부 평가위의 최종 심사에서도 호평을 받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로써 완주군은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고산 제3정부터 삼례 비비정에서 이르는 20km 구간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만경강 내 △국가하천 정비와 지류하천 정비 등 친수사업과 기존의 보를 개량하는 이수사업 △제방과 둔치의 식생을 개선하는 수질과 환경사업 △만경강 수변정원과 보행로 신설 등 친수사업이 본격 추진의 토대를 마련

한 셈이다.

완주군은 특히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외에 각종 연계사업으로 만경강 생태테마파크와 멀티스포츠파크 조성, 삼례문화예술촌, 삼색마을 조성,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삼례·봉동 도시침수방지대책 사업 등 6개 사업(총 2,363억 원)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계획을 보면 국가하천 정비와 지류하천 정비에 45억 원과 30억 원 등 총 75억을 투자하며, 기존 보를 개량하는 이수사업에 19억 원을, 외래종 제거와 경관향상 등 제방과 둔치 식생개선의 수질과 환경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투입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의 75%를 차지하는 친수사업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스마트자전거스테이션, 어린이물놀이터 등의 조성에 125억 원을 쏟아 붓고, 수변생태공원과 테마정원을 겨냥한 만경강 천변문화파크 조성에 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만경강 수상레저파크와 만경강 수변정원 조성에 각각 35억 원과 30억 원이, 삼례테마파크-만경강파크골프장 조성에 36억 원이 투자되

는 등 친수사업 추진에 총 310억 원이 안배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유희태 군수 등 완주군의 총력전과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등 전북도·정치권의 지원사격이 어울린 합작품이란 분석이다.

유 군수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휘에 나섰다. 김 지사와 안 의원은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 공조에 나섰다

후문이다.

유 군수는 “이번 선정을 통해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의 활용성도 인정받았다”며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관련 사업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치수와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의 분야를 통합해 추진하려고 공모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로 50%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광수/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제설 대응 끝까지 최선 다해달라”

우범기 전주시장, 23일 어은터널·서신동 지하차도, 덕진구도로관리소 등 제설 현장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설 현장을 찾아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을 위해 조금만 더 희생해달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범기 시장은 2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북동 어은터널과 서신동 지하차도, 덕진구도로관리소 등 제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연장행정을 펼쳤다.

우 시장은 먼저 제설 장비와 차량이 집결한 덕진구도로관리사무소를 찾아 최근 며칠간 이어진 폭설로 밤샘작업을 펼친 직원들과 한 명씩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녹여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며칠간 귀가도 하지 못하고 제설작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고생들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내 제설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많은 시민이 편안해진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시장은 또 제설작업의 핵심인 제설 장비의 운영상황과 연화칼슘 비축량 등도 꼼꼼히 챙겼다.

우 시장은 “전날(22일) 제설 장비가 추가로 운영되면서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이 한층 줄었다”면서 “오늘도 필



요하면 장비를 추가 임차하고 염화칼슘 등도 부족함이 없이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완산구와 덕진구를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진북동 어은터널과 서신동 지하차도를 차례로 방문해 원격제어 자동염수 분사 장치와 열선 운용상황 등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도 동행했다.

시는 자동염수 분사 장치가 운영중인 어은터널과 열선이 설치된 서신동 지하차도의 경우 폭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향후 폭설에 취약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 시장은 이날 백제로와 기

린대로, 팔달로 등 주요 도로를 찾아 이동하면서 제설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전주시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 군·경 등 유관단체들과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우범기 시장은 “목요일 퇴근시간에도 교통혼잡 시간 때 온누리교통봉사대와 전주시 모범운전자회의 도움을 받아 교통흐름을 최대한 유지한 것으로 안다”면서 “교통혼잡 시간 때 민간단체와 협력해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시내버스도 연착하지 않도록 임대차를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송일/기자

남원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돼 4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부문에서 남원시를 비롯해 7개 자치구, 15개 시·군 등 24개의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남원시는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21개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추진 등 물가안정 실적에서 지방물가 안정관

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고물가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가격동결을 유지하는 등 고물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명절과 축제기간과 행사기간에 맞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 ‘월매오’를 통한 더불어벤트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포인트 2배 적립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노력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물가안정점검반을 편성해, 성수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를 주4회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21개소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매일 이달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 2022 단체협약 체결식

김제시는 지난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전공공무직노동조합 김제시 지부와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2년 4월 단체협약안이 접수되어 9개월 간의 협의 끝에 111개 조항 및 7개 부칙으로 구성된 최종안이 체

결 되어 공무원 조합원들의 복지증진 및 근로조건이 상당 수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이라는 민선8기 슬로건 아래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김제시와

공무직 노동조합간의 이러한 화합된 모습은 노사관계에서 모두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김제시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은 “공무직 근로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도 김제시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태/기자

제10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문화와 남원

이래산업도시 남원

http://www.namwon.go.kr

겨울 · 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

개 장 _ 2022. 12. 25.(일) ~ 2023. 02. 12.(일)
 (임시개장 2022.12.25 ~ 12.31/ * 개장초기에는 날씨 사정으로 휴장이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주세요 T.063-635-0301)

장 소 _ 남원 바래봉일원 (운봉읍 바래봉길 214)

주요행사 _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동산, 눈꽃등반

윤병태 나주시장, 나주대 전환 위한 시민 중심 소통행정 강조

22일 민원·건의 추진상황 보고회 주제... 민선 8기 출범 후 총 310건 관리·점검 종결 53%, 추진 중 21%, 장기과제 13%, 대안제시 10% 등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시민에 의한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한 민원·건의사항을 점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국·소·실장 및 전제 부서가 참석해 '민원·건의 처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시정 출범 후 지난 6개월 간 시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접수된 총 310건의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완료 및 추진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

민원·건의 사항은 일과 이후 윤 시장과 마을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인 '찾아가는 마을 좌담회', '시장실 면담', 온라인(누리집) 소통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취합한 것으로 '종결', '추진 중', '장기과제', '대안제시'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건의사업 소관 부서(건수)는 교통행정과(44건), 건설과(31건), 문화예술과(21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310건 중 종결된 건의 민원 사항은 '금성산 자연거길 및 한수제 개방길 산책로 정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 173건(53%)이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나주시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를 통한 경관개선 등 64건(21%)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 지역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유치', '시립미술관 건립' 등 장기과제 41건(13%), '시내버스 이용금액 조정 요청', '빈집 무상임대 제도 마련' 등 대안 제시는 32건(10%)으로 집계됐다.

윤병태 시장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존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이 있는 것"이라며 "역지사

지 입장으로 자세히 경청하고 고민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공할 때 공직자로서 존재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후 310건에 달하는 많은 민원·건의 사항에도 과반 이상의 종결 처리와 대안 제시에 꼼꼼히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해당 민원·건의 사항이 종결됐더라도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꾸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해남군, 전남도 농식품유통평가 '대상' 수상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지역 먹거리 지수 A등급 '성과 탁월'

해남군이 2022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산물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는 농특산물 판촉과 유통,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와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전국단위 공모 선정 등 총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남군은 올해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등 농식품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지역 먹거리 지수 A등급, 원예산업종합평가 A등급, 친환경쌀 미국 수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한 성과를 거두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에는 1,100만원 상사업비와 함께 1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대표 농산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해남2030푸드플랜의 착실한 추진, 해남미소와 로컬푸드 등을 통한 효과적인 농산물 마케팅으



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 외수출을 통해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구례군 2022년 문화유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 선정

국보 7점, 보물 20점 등을 비롯한 문화유산 관리·활용 역량 우수성 인정

전라남도 구례군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문화유산 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매년 기초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정성·정량으로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구례군을 비롯한 5개

시·군(전남 해남군,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경기도 남양주시)이 정성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구례군은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한 점과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적극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노력 등이 크게 평가됐다.

구례군은 국보 7점, 보물 20점 등을 보유한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올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및 활용 등에 11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여 2022년에 '천연사 일주문'의 보물 지정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점('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점('호남여성농악-포장걸립-')이 지정되는 데 기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문화유산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구례군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개방,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유산이 온전히 전승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목포시,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 발굴에 집중

목포시가 젊은 층을 공략할 목포의 맛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의 맛' 시책의 일환으로 목포의 대표 맛인 9미(味)의 브랜드화에 노력해온 시는 더 나아가 '청년이 좋아할 맛, 청년이 찾는 목포의 맛'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들어 외식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에 필수적인 레시피 브랜드화 전략과 MZ세대 입맛을 겨냥한 맞춤형 레시피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존 음식행사의 틀을 깨고 미식의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음식축제인 목포미식페스티벌을 개최해 목포의 맛을 주제로 한 공연, 푸드아트 퍼포먼스, 토크쇼 등을 펼쳐 목포의 맛을 색다르게 해석했다.

목포항구축제에서도 '목포 맛보기'의 일환으로 '쇼미더9미'를 열고 음식을 전공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참가



해 기존의 9미 음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레시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9미를 홍보하고 MZ세대의 입맛과 취향을 공략할 레시피 발굴을 위해 '목포9미푸드콘테스트'를 열었는데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져 9미와 목포 맛의 인기를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대표 맛인 9미로 청년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레시피를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좋아하는 맛을 브랜드화해 목포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영광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6년 연속 최우수군 선정

영광군은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식품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차별화된 농업유통 시책 추진을 인정받아 2022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농식품 산업 기반구축 및 품질관리,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등 모든 분야에

서 객관적인 추진실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영광군은 2022년 전라남도에서 평가한 3개 농업분야 '농정업무', '식량, 원예 업무', '농식품유통 업무'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등 농업 일등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아울러, 선진 농업,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군, 식량·원예 업무평가 2

년 연속 최우수군, 농식품유통 업무평가 6년 연속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농식품유통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각 분야별 적극적인 동참과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과 관계자 덕분이며, 앞으로도 농식품유통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들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남/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강원도 2023 문체부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 2개 대회 선정

2023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평창군, 9월), 국비 6억 원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2개 대회가 선정되어 7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총 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일까지 공모와 심사를 거쳐 9개 시도, 21개 대회가 선정됐으며 이 중 도는 2023 세계믹스더블·시니어컬링선수권대회(강릉시, 1.1억 원), 2023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평창군, 7억 원)가 각각 선정됐다.

'2023 세계믹스더블·시니어컬링선수권대회'는 세계컬링연맹(WCF)이 승인하는 대회로 강릉시와 대한컬링연맹 주관으로 개최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세계컬링선수

권대회로서 2023년 4월 22일부터 29일까지(8일간) 강릉올림픽파크(강릉 컬링센터, 강릉하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 세계 20개국 이상, 약 3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2개 종목(믹스더블, 시니어)의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믹스더블은 대회 결과에 따른 올림픽 랭킹 포인트가 부여될 예정이다.

'2023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는 아시아탁구연맹(ATT)이 승인하는 대회로 평창군과 대한탁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최초 1972년에 개최되어 2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2023년 9월 3일부터 10일까지(8일간) 평창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아시아 30개국 이상, 약 3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남녀 단체전·개인전·개인복식, 혼합복식)의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남녀 단체전 각 1장, 남



내개인전 각 2장, 혼합복식 1장)과 '2024부산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남녀 단체전 각 10~12장)이 배정됐다. 강원도 김동준 체육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국제경기대회의

영월군 문화도시 군민보고회 개최

제4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영월군은 26일 2022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돌아보고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의 계획을 제시하는 '문화도시 군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전국 16개 예비 문화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군민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영월문화도시 추진위원, 예비문화도시 참여주민 및 학생, 관내 단체장, 일반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월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인 엄홍용 영월문화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보고회는 2022년 예비문화도시 활동 영상 상영을 통하여 한해 동안의 노력을 참석주민이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또한, 전문가 격려사 순서로 이어져 전영철 상지대학교 교수는 2020년 문화도시 도전 당시의 어려웠던 여건과 이를 극복하며 성과를 이루어낸 영월군민의 노력에 대하여,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은 금년 법정문화도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 영월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영월군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망했다.

이후, 지역 예술인 밴드인 유가밴드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져 자작곡 '영월에 살아요' 등 흥겨운 무대로 군민의 자축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큰 도움을 준 유공자에 대한 영월군수의 포상이 수여됐는데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에게는 감사패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김성민 총괄기획자와 김태호 코디나이터에게는 공로패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김경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다음으로 이어진 군민보고의 순서에는 최명서 영월군수가 직접 문화도시와 군민의 단합된 힘을 밑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자는 주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

한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연인원 1만여명이 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역할, 감춰져있던 청년활동가들의 발굴과 참여, 귀농 귀촌으로 정착한 청년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문화도시의 개념설명을 통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요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문화도시 조성의 중요성과 글로벌화 시대 결쳐 노믹스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지역파급 효과와 이를 실제로 이루어낸 선진사례인 스페인 빌바오, 바르셀로나 및 일본의 가나자와 도시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13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인 5개 분야 15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군민의 정주의식은 높이고 관계인구는 확대하여 지역을 새롭게 변모시키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사업총괄 운영 및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운영 △문화도시사업 성과지표연구, 전문가 네트워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조사연구사업 △지역민과 문화도시와의 허브역할을 하는 지역 내 활동가 양성 △영월 DNA 아카이브 △영월도시자산 브랜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공급자 역할 사업 △주민주도 사업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영월리빙랩 2.0사업 △세컨드 뮤지엄마을 사업 등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법정문화도시 선정으로 우리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도시브랜드 강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재유입 및 지역 활성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등원/기자

강릉시, '스마트 돌봄플러그'로 고독사 위험 선제 대응

이웃살피미앱, AI 안부전화에 이어 도내 유일 3가지 ICT기반 돌봄시스템 구축

강릉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가전제품 사용량과 집안 온도 변화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활동상태를 24시간 원격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복지서비스로.

설정된 시간 동안 전력, 온도 측정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위험 단계를 읍면동 담당자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2021년 12월 강릉이웃살피미 앱을 구축하여 고독사 위험군 146명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도내 최초로 네이버(주)와 협약하여 55가구에 AI를 통한 안부전화를 주1회 실시하고 있다.

강릉이웃살피미 앱, 네이버 클로바케어콜, 스마트 돌봄플러그 3가지 모두 갖춘 지자체는 도내 강릉시가 유일하며 ICT기반 돌봄시스템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돌봄플러그'는 인적 안전망 및 AI 안부전화 거부자, 스

마트폰 미소지자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 노년층 진입을 앞둔 취약계층 등 150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조연정 복지정책과장은 "우리동네 1촌 돌봄단(인적안전망)과 ICT기반 돌봄시스템으로 맞춤형 안부확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친절·청결 홍보 앞치마' 1,800개 제작 배포

동해시가 고품격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의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청결 홍보 앞치마 1,800개를 제작하여 연말까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앞치마를 배부받는 업소는 최근 3년간 모범음식점 및 안심식당, 식중독전설명 등 위생사업에 참여한 업소와 착한가격, 군장병할인 등 시책사업에 참여한 음식점으로, 업소당 종사자용(주방용 및 서빙용) 앞치마 5개씩 배부된다.

시는 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앞치마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청결한 앞치마 착용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홍양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책 사업에 식품점영업소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친절하고 깨끗한 고품격 음식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양양군,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대책 본격화

비상 근무체계 유지, 다수 제설장비·자재 배치하여 폭설에 선제적 대응

양양군이 올겨울 제설 대책기간을 내년 3월 중순까지 운영하며,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과 고립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내 도로 전 구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다목적제설차(유니목) 1대 ▲굴삭기 1대 ▲15t 장착용 제설기 4대 등 큰 자재보유 제설장비와, ▲다목적제설차(유니목) 6대 ▲15t 덤프 3대 ▲5t 덤프 1대 등 임차장비를 24시간 운영하고, 읍·면 자체적으로는 제설차량 12대와 마을안길 제설용 트랙터 170여대를 운영하여 폭설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5개 노선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염 340톤과 염화칼슘 120톤을 준비하는 한

편, 읍·면 별로 친환경제설제를 2톤씩 추가 비치하여 비상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양읍 임천리에 위치한 제설 전지기지를 24시간 운영한다. 제설전지기지는 굴삭기 1대, 유니목 1대, 1톤 제설차 2대와 제설제인 제설염 75톤, 염화칼슘 40톤, 모래100톤을 배치했다.

양양시가지 전구간(도시계획도로 52km)의 교통두절과 고립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양양시가지 제설작업 역을 양양군중기연합회와 연계추진하여, 다수의 제설장비(굴삭기 55대, 덤프트럭 20대 등)를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설자재 및 장비 보관을 위하여, 지난 11월 사업비 15억원(국비10

억, 군비5억)을 들여 스마트제설종합센터 제설창고를 건립했으며, 부대시설로 제설작업차량 주차장 및 재난대응제설사무소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폭설 대비를 위해 지난 11월, 대규모 기술 폭설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간의 폭설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기상예보가 있거나, 폭설이 발생하면 자연재난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고, 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며, "폭설에 따른 사고 발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철원군 한탄강 물윗길, 주상절리길 한국관광의 별됐다

올해 12회째 최고 영예 한국 관광 본상 수상

철원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 이 한국관광의 별에 올랐다. 철원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크홀에서 개최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서 철원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해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시 중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 매력 관광지 발산 등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

지가 선정됐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과 주상절리길은 3년 내 새롭게 선보인 신규 관광지로 향후 성장에 기대되는 관광지라는 이유로 본상에 선정됐다. 이외에도 강원도에서는 강릉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평창 와우미탄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현중 군수를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신인철 부군수는 "올해 천만 관광객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군이 한탄강의 기적이란 말과 함께 관광의 신세계를 맞이하고 있다"며 "영광스런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을 군민 모두와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정선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 개최



정선군은 숲과 나무가 주는 소중한 가치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기며 청정 자연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

에 들어갔다.

군은 22일 정선을 광하리 모평문화공원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선군의회 의장, 문영준 강원도 산림소득과장,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장한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정선은 광하리 1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건축면적 891.28㎡, 연면적 1,409.96㎡, 지상 2층 규모의 목재전시체험관(DIY체험실, 어린이 오감체험실, 목재문화전시실)을 비롯해 목재놀이터, 야외교육장, 목공체험실, 주차장 등 각종 체험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한강수계 동강과 함께 매년 동강할미

꽃 축제가 열리는 동강할미꽃 자생지와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및 야영장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군은 목재문화체험장은 청정 정선의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와 병방산 군립공원 등 관광지를 연계한 산림문화 휴식 공간제공으로 자연학습장 및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주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축적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목재 문화 체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이세나/기자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력 성과 공유·유공자 격려

22일 성과보고회·유공자 시상식 개최...노사민정 공동선언도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2일 덕산 스피러스 리움에서 '2022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성과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추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노동정책 추진에 공헌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홍 지사,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장, 노사민정협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시상, 성과 및 우수사례 보고,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0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우수지자체 장관 표창 '대상'을 수상한 도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개인 부문에서 노사 간 협력과 상생 문화 정착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협의회 사무국장, 위원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각각 전달했다.

아울러 이날 시상식에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유공자 부문에서 지역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 고용·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개인 7명과 4개 단체를 선정, 도시사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 사무국이 주관하는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상에 '작은사업장 안전건설 지원사업'을, 최우수상에 '노동전문 특별위원회 운영'을, 우수상에 '충남노사협력포럼'을 선정해 시상했다.

시상에 이어 협의회는 '대전환의 시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산업구조 전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내포 혁신도시 예산군!"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총력'

내포 혁신도시인 충남 예산군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군은 서해선 복선 삼교역 신설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내포 혁신도시 인근 128만평의 4개 산단 조성 등 우량 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면서 충남은 물론 전국의 중심으로 발돋움을 넓히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지난 2020년 10월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 이후 혁신도시 TF팀을 조직하고 공공기관 유치방안 모색 및 홍보 등 활동에 나서왔다.

예산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혁신도시 시

2(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발맞춰 예산군은 TF팀 가동,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지속적인 방문홍보 유치활동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 등 주변여건 변화 대응 예산군 공간개발 방향 연구 등 연구용역 추진과 공공기관 유치 결의다짐 행사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예산군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으며, 앞으로도 충남도 및 예산군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에



따라 피해를 본 충남지역이 2020년 예산군은 삼교역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천안시민의 고충처리반 직소민원실, 43% 민원 감축 성과

갈등 고조 전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올해 2,515건 민원 처리 전년 대비 민원 감소

성환읍 A씨는 2020년 왕림리에 공공시설물 공사를 위해 공사기간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는데 공사 후 뒷정리가 미흡하여 최근까지 농사를 못 짓고 있다는 민원을 넣었다. 천안시 직소민원실은 시 발주 각종 건설공사 대상지를 찾아 일일이 담당자와 협의해 성토가 가능한 사토가 있는지 파악하고 성토 후 해결했다.

천안역 부역장은 한국철도공사부지인 천안역 동부광장 택시승강장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 노숙인이 불법적 처물을 수년간 쌓아 자전거보관대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천안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소민원실은 동남구청과 천안역, 천안경찰서 3개 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각 기관의 지원 가능한 부분을 적극 도출해 불법쓰레기를 처리했다.

입장면 B씨는 안성·세종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임신한 부인은 하혈로 입원까지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민원을 시공사에 넣었지만, 일시적 거주지 이전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고도 어떠한 조치가 없으며 천안시에 하소연했다. 시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약속사항을 즉시 이행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는 거주지 이전을 즉시 조치하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천안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이 올해는 전년 대비 약 43% 민원 건수를 줄여 시

민 고충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직소민원실은 갈등이 고조되기 전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민원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프라인 '열린시장실'과 온라인 '시장에바란다'를 비롯해 전화와 방문, 우편 등으로 민원 신청을 받아 일반 창구에서 즉시 해결되기 어려운 민원과 수차례 반복되는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총 4,356건의 민원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11월 30일 기준 총 2,515건의 민원을 처리해 전년 대비 약 43%가량 민원 건수를 줄였다. 단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민원 관리를 펼친 결과다.

또한 올해는 1년 이상 된 고충민원 30건 중 29건을 해결해 약 97%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에게 법령을 벗어난 요구와 폭언 등으로 업무방해를 일삼은 악성 민원인들을 만나 면담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고질 민원을 근절하며 행정능률을 높이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실 문을 활짝 열어 박상돈 시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열린시장실은 올해 13회(20건)에



결쳐 △정책제안 1건 △지역민원 5건 △단체민원 6건 △개인민원 8건을 해결했다.

올해는 민원을 해당 부서가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장기검토 또는 추진 불가 사항은 대안 모색 및 사유 명시를 안내해 행정 불신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뒀다.

최정근기자

대전의 공공시설물 "명품"으로 건설한다

사업구상 시점부터 "시설물에 인문학을 도입"하여 추진

대전광역시시는 관광, 전시, 체류 효과를 위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상급 품질과 독창성,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명품 도시 대전 만들기"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우선 시본청 및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시설물에 적용한다. 민간시설물은 '목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명품 시설물"을 건설을 위해 첫 번째로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통해 시설물 건설 추진단계별 명품 컨셉(개념)을 설정 및 보완 방안의 강구와 설계자 선정 시 경관디자인 분야 배정을 최대 30%까지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건의 및 시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관련 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기술 분야를 포함한 인문, 역사, 문화, 미래, 첨단IT 전문가 등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넓히고,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2030 대전시 경관계획'을 기초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 권역별, 거점별, 경관축별 시설물에 특화된 "컨셉(개념)"을 부여하고 시공 과정도 감수를 받도록 했다.

세 번째, "설계, 디자인 등 공모제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및 포상금 지급 등 평가지침을 마련, 우수한 건축가들이 설계공모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강화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공학과 인문학의 조화"로 함축적, 상징적 랜드마크(조형물 또는 상징물)를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발굴 및 개발을 통해 이야기를 입혀 직접 가보고 싶은 명품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전역의 명소와 관광지, 건물 등에 대한 "스마트폰 안내시스템(일명 스마트 가이드) 앱"을 개발, 방문객이 별도 안내자가 없어도 휴대폰 앱을 통해 대전의 건물과 시설물,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문화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동을 기억하게 하는 홍보"전략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명품 대전"을 목표로 간략하며, 재미있고, 시선이 멈추는 기억을 담은 도시가 될 수 있는 홍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는 현재 계획 중이거나 사업추진 과정 중에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부지내 랜드마크 건립', 문지동과 신대동을 연결하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공사', 도룡동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시설물 사업을 "민선 8기 중점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명품 시설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타 도시나 외국의 도시를 방문할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도시의 건축·토목시설물 형식 등을 눈여겨보기 마련이고, 이 시설물 들을 통해 도시의 품위와 품격을 결정하게 되기에 명품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야 대전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며,

"앞으로 '명품건설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과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 전시, 체류 효과를 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보은군, '2022년 보은대추 산업발전 워크숍' 개최

(사)보은군향토대추연합회 주관으로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2022년 보은대추 산업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 이날 행사에는(사)보은군향토대추연합회와 보은군과 보은군산림조합 후원으로 열렸으며 대추연합회 임원 및 회원, 대추농가 등 4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추후도연구소 박희순 연구사가 '이상기상 대응 보은대추 안정작과를 위한 대추 재배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회원간 대추 재배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은 "최근 갈

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 강의와 재배 농가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재철 회장은 "이상기후에도 변함없이 고품질 대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해 전국 최고의 명품 보은대추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행 보은군수는 "보은대추는 명실공히 전국 명품 농특산물로 자리매김 했다"며 "지속되는 이상기후에도 고품질의 보은대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2022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장관상 수상

지역전략산업 기반 일자리정책 성과 빛나, 2년 연속 수상

청주시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에 참여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는 2021년 산업통장자원부장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펴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총 91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사례에 대해 창의성·파급력·지속성·융합성을 평가받는 1차 서류심사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

포'의 전시 콘텐츠 현장심사 등을 거쳐 6개의 지자체와 7개의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오창 소부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산업 일자리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청주시민의 특색 있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주시민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달성군 수출유공 5개 업체에 감사패 수여



달성군은 지난 23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출증대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수출유공 5개 업체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출유공업체 (주)메가젠임플란트, 한국에스케이에프셀(주), 신일산업(주), (주)진양오일셀, (주)농업회사법인 휴먼웰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들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는 안전하고 우수한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nyRidge(에니릿지), Anyone(에니원) 제품 등을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9년 연속 유럽, 2년 연속 미국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등 매출액의 70%를 수출로 실현하고 있다. 또한 고품자 친환경 기업, 고용친화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수의 인증을 획득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크며, 기업이윤을 사업에 환원하여 인재양성에 힘쓰는 등 ESG경영을 추구하는 수출 우수기업이다. 특히, 지난 8일 대구 인

터볼고호텔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전시식' 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했다.

한국에스케이에프셀(주)(대표 허용수)는 자동차 부품인 오일셀 제조업체로 ISO14001(환경 경영체계), 보건 및 안전, 제품생산 관련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코로나 장기화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전세계로 꾸준히 수출하고 있다.

(주)신일산업(대표 김항규)는 글로벌 섬유시장 개척을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불량제로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모토로 끊임없는 기술개발 중이다.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등 다수 국가에 수출 중이다.

(주)진양오일셀(대표 이명수)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 기아, 만도, ZF, BYD 등 자동차 관련 기업 및 삼성전자, LG전자, 하이얼 등 전 세계 유수의 기업에 오일셀, 워터셀, 배어링셀 등을 수출 중으로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4% 정도를 R&D에 투자해 미래 지속경영을 위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농업회사법인 휴먼웰(대표 석용도)은 조미김과 김스낵 등을 주로 생산하여 중국, 미국, 일본 등 15개국에 수출 중으로 2017년 FSSC 22000(식품안전인증)을 취득하며 해외시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외바이어 발굴을 위해 꾸준한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로 라오스, 핀란드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 했을 뿐 아니라 R&D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를 위한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달성군에서는 신산업 기술이전 및 이전기술사업화 지원, 수출 보험료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매혹적이고 세련된 '소프라노 진윤희' 여자 성악가 관심주목

주목받는 여자 성악가, 소프라노 진윤희는 올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 인터내셔널 리더어워드'에서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음악부문'을 수상했다.

성악가이자 판페라가수, 부산예술대 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윤희는 매년 각종 음악회에 초청되어 공연을 해오고 있다.

소프라노 진윤희 성악가는 지난 1월, 한·중 수교 30주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2022한·중우호음악회'에도 함께 해 화합과 존중, 한·중우호관계를 위해 노래했으며, 3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세계평화열원특별콘서트'에 서울팝오케스트라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함께 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목), 부산 MBC 목요일음악회 '소프라노 진윤희와 함께하는 가을산책'에서 독창회를 성공적으로 공연했다. 이 공연은 성악가 진윤희와 부산여성실내악단, 성취자 김현국, 테너 류정필, 장구 이현서, 팽과리 저정현, 남부합창단이 특별히 함께한 음악회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 실내악, 만남, 환희, 그리움, 희망을 주제로 남녀가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테마로 한, 클래식곡과 가곡, 민요, 창작곡들을 공연했다.

특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소프라노 진윤희와 테너 류정필과 함께 노래한 '아름다운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으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새롭게 맞이한 가을, 사랑 가득한 공연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소프라노 진윤희 성악가의 진심이 표현된 열린 음악회였다.

세련되고 매혹적인 음색, 열정적인 감성을 담아내는 여자 성악가이자 판페라가수 진윤희는 미국 뉴저지 상하원 피창장, 러시아 야쿠츠크 문화부 장관상, 제9회, 10회, 12회, 1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특별상 및 예술상, 대한민국자랑스러운한국인 대상 음악부문 등을 수상하며 국내외에서 소프라노 실력을 인정받았다.

진윤희 성악가는 서울 내셔널 오케스트라, 뉴서울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안 서울오케스트라, 헤럴드 오케스트라, 체코 야나첵 오케스트라, 러시아 야쿠츠크 국립오케스트라, 레닌그라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많은 국내외 협연 공연을 해왔고,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의 해외 독창회와 국내 독창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수많은 성악가가 무대에 오르고 있지만, 꾸준히 주목받으며 활동하고 있는 국내 여자성악가는 드문 편이다. 소프라노 성악가로서 판페라가수 뿐만 아니라 부산예술대학교 교수로도 재직 중인 진윤희 성악가는 멀티예술인으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김희영 의원, 자랑스런 의원상 수상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 김희영(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유진선, 김희영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진선 의원은 "지방자치의 앞길을 터주신 전직 의원들의 뜻을 이어받아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앞서 의원활동을 했던 선배들이 수여하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

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부산 남구, 2022년 비상대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부산 남구는 2022년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부산 남구는 기초지자체에서는 드물게 비상대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구를 비롯한 비상대비 확립 유공자, 유공기관·단체를 선발, 포상을 선정할 때 따온 것이다.

남구는 2017년 이후 코로나19상황 등으로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실시한 올해 을지연습을 대비하여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사전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남구 총무계획 시행도표(matrix) 및 통합상황조치모델'을 전면 개편·수정하고 통합방위예규를 개정, 이번 을지연습에 적용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과 북한의 지속적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안보상황 속에서 실시한 2022년 총무훈련과 을지연습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매뉴얼' 등을 자체 제작하여 코로나19상황으로 지난 몇 년간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 등 기관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중심의 실제훈련으로 17개 동(洞)의 주민 참여 체험훈련을 포함하여 다중밀집지역인 구청사 테러 대응 방호 및 소방훈련에 남부경찰서, 남부소방서, 해군작전사령부 등 총 7개 기관 200여명, 지휘차, 굴절차 등 10종 180여명의 장비 동원 등 지역 군부대를 포함한 유관기관 간 탁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시 즉각 활용 가능한 민방위대 역

량을 확보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안전한 남구를 만들고자 민·관·군·경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적극 참여한 구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남구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화성시의회 전성군 의원, 홍재의정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전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제11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의정대상'은 정초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플뿌리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한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5분 자유발언과 다양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및 복지분야 현안 해결에도 적극 힘써 공을 인정받아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성군 의원은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입니다.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시민을 섬기며 의정활동 하겠습

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 뭉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 '의정대상'에서 광역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로 잡아 시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사랑상품권 등 잘못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과도한 수익계약 체결, 지역 의견수렴 없는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변경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 관행 타파를 위한 활동

들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 후 이봉준 의원은 "철저한 집행부 견제로 서울시를 바른 시정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고로, 한국언론연대는 한 해 동안 광역, 기초단체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향 감시, 견제 역할에 앞장선 지방의원들을 엄격히 선정해 '제1회 의정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안성시, 베트남 시장개척단 1,328만불 상담실적 달성

안성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안성시 수출 중소기업 5개소를 파견하여 총 54건의 1,328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안성시 시장개척단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극복과 대응 마련을 위해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진해왔지만, 금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예정됐던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현지 파견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트남 시장개척단'에는 사전 시장성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안성시 수출업체 5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베트남 현지 내 상담장에서 바이어들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상당한 수출 계약 성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미생물 기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진산티앤씨는 300만불의

MOU 체결이 이루어졌으며,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KGE 기업 또한 300만불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매년 시장개척단 1:1 바이어 상담 알선, 상담 통역비, 카탈로그 및 샘플 배송비 등 수출상담회 운영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추진해온 시장개척단이 이번엔 현지 파견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이후 최대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기업들도 만족할만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기업인 100명 만담김동연 "어려운시기 반드시 살아남아달라. 있는 힘 다해 돕겠다"

22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논의 및 기업 현장의견 청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선 기업인 100명을 만나 내년 경제성장기 어려울 것 같으며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며, 그러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판매업체 (주)제우스에서 화성시 소재 기업인 100여 명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1.5%를 제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년에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치솟는 원자재 가격, 물류비용, 국제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상황 등 진짜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IMF 위기도 겪어 봤고 최전선에서 많은 기업을 목도했다. 살아남으셔서 터널을 지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힘 내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귀 열고 듣겠다. 어려운 시기 반드시 살아남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덧붙였다.

맞손토크는 김동연 지사가 매일 1회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는 장으로 지난 9월 안양시를 시작으로 10월 연천, 11월 안산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3년의 맞손토크가 원도순, 접경지역 등 지역 현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화성시 요청으로 기업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가 더 많은 기회다. 우리 경제의 역동

성, 기업의 창의성 또 마음껏 기업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들이 이런 것을 애기하고 싶다"며 "이번에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었다. 미래먹거리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를 만들었다"고 도정 방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화성은 2만 2천여 기업이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과 산업의 심장이다. 경기도의 미래 성장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먹거리 중추 역할을 화성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다"며 "중앙정부 규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스스로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통해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은 "스타트업들이 핵심 아이템을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모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슈들을 같이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공장을 새로 신축하려고 9월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공장총량제 때문이었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할 수 있다."

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제도

적으로 고쳐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 기업인들은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인근 도로 확장 ▲향남제약산업단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지자체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지원 ▲공장 밀집 지역 상수도 연결 ▲소상공인에 시제품 제작 장비 지원 ▲산단 근무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을 건의했고 김 지사는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한 기업인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최근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2008년 위기는 국제 금융 위기이고 지금은 미래먹거리를 둘러싸고 국가 패권주의와 영여 팽창이 복합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갈등, 양극화와 계층 이동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며 "또다시 승자독식과 시장만능주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다든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살 수 있는 시장안정망을 만들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만큼이라도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방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핵심공약 사항으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선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최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



원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희철·박진영·신미숙·이은주 도의원,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한 현대차 남양연구소 상무, 이종우 (주)제우스 대표 등 기업인이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번 기업인과의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매달 다양한 방식으로 맞손 토크를 진행하는 한편 미래산업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문가, 기업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대전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 2023년 국방산업 발전방안 논의

대전시는 12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대전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대전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산·학·연·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대전시 국방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08년에 창립되어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석봉 시 경제과학부시장을 비롯해 방산기업, 연구기관, 군,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국방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2년 대전시 국방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국방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관련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방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확정'과 방위사업청의 '방산 혁신클러스터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국비 245억 원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국방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방산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44개 기업에서 89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1,7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 20%, 35%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올해 22개의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신규 협약을 체결한 대전국방벤처센터는 총 83개의 협약기업에 다양한 사업 지원을 수행했으며 방위사업청의 사업 연계를 통해 대전 소재 우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은 내년에는 군 수요 중심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군 관련기관 및 체계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방산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3년에는 소요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국방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은 "오늘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지역 국방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고흥군,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최종 확정

2031년까지 1조 6천억원 투입,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앵커기업 유치

고흥군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2회국가우주위원회 심의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로 고흥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우주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새로운 주력산업 창출을 위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며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3개 지역을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했다.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구축돼 있으며, 민간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해 발사체 특화지구로 선정됐다.

그동안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기 위해 고흥군은 전남도와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국회에 여러 차례 방문·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반영에 이어 이번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주요 내용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건립 ▲국민 교육·체험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우주소재부품 다각화 지원

등이며,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비 3,800억 원을 투입해 약 172만 9,174㎡ 규모(약 52만평)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0개 이상의 우주발사체 조립 및 부품 제조 관련 주요 앵커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대한민국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누리호 키츠, 청소년 등'에게 우주분야 교육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전남권 인근 대학과 연계해 국가산단 내에 '산·학 융합캠퍼스'를 조성하고, 지역혁신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시험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기업지원체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클러스터 지정 후 2023년부터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 개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군에서

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발사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우주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10년 후 인구 10만 이상의 웅군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우주발사체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현재 평가 진행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앵커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을 계기로 우주산업 전후방산업 발굴과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큰 힘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충청북도 강소 바이오기업, 오송첨복단지에 잇따라 등지른다!

충청북도는 12월 23일 도청에서 (주)키프론바이오, (주)알데바와 597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강종구 (주)키프론바이오 회장, 김진오·스티브 박 (주)알데바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키프론바이오는 랫드, 마우스뿐 아니라 영장류를 이용한 비임상시

험 생체시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으로 영장류 이용 비임상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주)알데바는 카이스트 교원 창업기업으로 인체조직과 유사한 신소재를 활용해 의료교육용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돼지·시신을 이용하는

기존 의료교육의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리온 소재의 한계를 극복해 의료교육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도는 이번 유치를 통해 R&D-비임상-임상-마케팅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오송에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에 한 발짝 나아가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협약한 기업들이 오송에 뿌리를 내리고 앵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미국 보스턴에 견줄만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손 없는 날' 신동엽, "네컷사진 처음 봐" 31세 청년 부부 만남에 '옛날 사람' 굴욕!

'손 없는 날' 신동엽이 소위 인싸포토로 알려진 '네컷 사진' 앞에서 옛날 사람 굴욕을 당했다.

JTBC 예능 '손 없는 날'(연출 김민석 박근형/작가 노진영)은 낯선 곳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시민들이 이사를 결심하기까지의 인생 스토리를 담아 가는 프로그램. 결혼 후 분가, 인생 첫 독립, 가족의 증가와 축소 등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정적에서의 '이사'에 얽힌 현재 진행형 이야기. 내일(23일) 방송되는 5회에서는 네 살배기 쌍둥이 남매를 기르는 31세 청년부부의 강동진사기 피해 스토리가 그려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동엽이 청년부부의 만남에 뜻밖의 신문물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 흥미를 높인다.

사연인즉슨 신동엽이 의뢰인 부부와 자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대우행하고 있는 즉석 무인 사진관에서 촬영한 '네컷 가족사진'을 보고 "요새 이런 사진도 있네?"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 이에 한가인이

"요새 유행하는 사진인데 찍어 보셨나"라고 묻자 신동엽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고개를 가로저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같은 신동엽의 옛날 사람 인증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신동엽은 대세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인 cookie를 "처음 들어봤다"라고 고백해 '아이돌 덕질 전문가' 한가인으로 부터 속성 과외를 받아 웃음을 유발한 바 있다. 이날 역시 한가인은 '손 없는 날' 공식 MZ문화 전도사 답게 신동엽에게 '네컷 사진'의 모든 것을 알려주며 콤피 케미를 뽐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신동엽은 네 살배기 쌍둥이 남매와의 만남에 16년차 아빠의 내공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촬영팀의 방문에도 아랑곳없이 종알종알 수다를 떠는 해맑은 쌍둥이의 모습에 의뢰인 부부가 난감해하자, 신동엽은 "나중에는 아이들의 저 재잘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른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육아기를 회상해 훈훈한 미소를 자아냈다고.



이에 '네컷 사진'은 몰라도 부모 마 음은 잘 아는 신동엽이 공감요정으로 활약할 '손 없는 날' 본 방송에 기대 감이 모인다.

시청자의 가슴 속 감성을 서서히 휘

'커튼콜' 강하늘X하지원, 어색해도 달달! 월드챔피언급 '스윗 케미'!

'커튼콜'의 강하늘과 하지원 사이에 어색한 로맨스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달달한 케미가 포착됐다.

KBS 2TV 월화드라마 '커튼콜'(연출 윤상호/극본 조성걸/제작 빅토리 콘텐츠) 측은 유재현(강하늘 분)이 배동제(권상우 분)와 결혼을 선언한 박세연(하지원 분)에게 급 고백한 뒤 밀당 로맨스로 전환돼 호기심을 자극한 13,14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유재현은 어렵게 마음을 고백하며 다가갔으나 박세연이 누나 동생 관계로 선을 그으면서 사이가 어색해졌다. 이후 추억 여행을 간 자금순(고두심 분)은 건강이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졌고, 가짜 손자 유재현을 섭외해 비밀 연극을 기획했던 정상철(성동일 분)은 모두에게 진실을 고해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가운데 공개된 13,14회 비하인드 영상에는 유재현이 마음을 고백한 이후 사이가 대면대면해진 박세연에게 동반 출근을 제안하는 장면이 담겼다.

본방송에서는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정도로 냉기류가 흐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전파를 뒀으나 현장에서는 날을 세우는 게 오히려 어색해 웃음이 터지는 달달한 꿀케미로 가득했다.

하지원이 입을 의상에 적힌 글귀만으로도 웃음꽃이 피는 등 낙원즈의 대표 '스윗 커플'다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줬다.

자금순의 혼절 이후 살얼음판이 되

어버린 낙원 가문 식구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이 장면에서 강하늘은 로맨스 연기 내공뿐만 아니라 액션 배우로서 면모도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텔 매각에 앞장서며 속내를 잘 보여주지 않았던 첫째 손자 박세준(지승현 분)이 할머니의 입원 소식을 듣자 속상한 마음에 애꿎은 유재현에게 주먹을 날리는 장면.

이 컷에서 강하늘과 지승현은 날렵한 주먹 연기로 완벽한 액션 합을 보여주며 낙원즈의 불꽃 브라더스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황우슬혜가 흑시 다친 건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로 리얼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

이처럼 낙원즈 패밀리들은 엄숙한 분위기의 촬영 장면을 앞두고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부까지 찰떡 케미를 과시했다.

성동일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동료 배우들의 표정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친절함과 장구미로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또한 강하늘과 하지원은 손을 잡는 장면에서 각도까지 생각하는 디테일한 연기 합으로 마지막까지 케미를 끌어올리는 연기 장인다운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집중시켰다.

거북같은 굳센 여인 자금순의 일대기와 진한 가족애가 선사하는 대서사시로 감동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드라마 '커튼콜'은 오는 26일과 27일 밤 9시 50분 15회와 최종회인 16회가 방송된다.

황지원/기자

'미씽: 그들이 있었다2' 이유 있는 상승세... '민보 썬케미X주제 의식' 시청자 心 저격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가 단 2회 만에 자극 없이도 빠져드는 월토 드라마 파우를 과시하며 매서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연출 민연홍 이예림/극본 반기리 정소영/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제작 메이스 엔터테인먼트 두프레이/이하 '미씽2')가 방송 첫 주부터 시청률 상승세를 기록하며 호조의 출발을 알렸다. 특히 2회는 전국 평균 4.1%, 최고 5.2%, 수도권 평균 4.0%, 최고 5.5%로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 또한 전국 평균 2.3%, 최고 2.9%, 수도권 평균 1.8%, 최고 2.5%로 2회 연속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1위를 기록, 화제의 드라마임을 입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스코리아 제공)

이처럼 '미씽2'가 시청률 상승과 함께 호평을 이끄는 요인으로 배우들의 열연과 케미 그리고 극 전반에 깔린 주제 의식이 꼽힌다. 2년 만에 '영혼 보는 콤피로 컴백한 고수(김욱 역), 허준호(장판석 역)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호흡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김욱이 보이스피싱범을 쫓고, 사제유기법의 모친에게 접근하는 등 몸물 사범이 없는 활약을 펼치는 동안 장판석은 경찰에 연락을 위해 김욱의 뒤를 지키고 실종 영혼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의 모친에게 공감과 위로를 표하는 찰진 호흡으로 브로맨스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실

종 사건을 추적하는 쫓겨난 전개 속에 유쾌한 티키타카로 웃음을 더하며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이정은(강선장 역), 안소희(이종아 역), 김동휘(오일용 역), 하준(신준호 역) 등 배우 군단의 탄탄한 연기력과 캐릭터 플레이가 극에 감칠맛을 더하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안소희는 브레인 활약으로 실종 사건 해결을 가속화했고, 하준은 형사로서 정보를 확보하고 살해범을 잡으며 고수, 허준호와 손발 척척 맞는 사이다 공포 케미로 짜릿함을 선사했다.

영혼 마을 3공단 주민으로 '미씽2'에 새로 합류한 이정은은 영혼 마을 사람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귀엽고 정다운 이모의 포근함을 더했고, 김동휘는 베일에 싸인 미스터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미씽2'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라진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의 간절함을 그리며 시청자를 더욱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극 중 등장하는 영혼 마을 3공단의 주민들은 사체를 찾지 못한 실종자의 영혼들.

지난 1-2회에는 딸 양은희가 실종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친 김명자(이덕희 분)의 사연과, 3공단에서 여전히 그리운 딸의 발자취와 마주하고 눈물을 떨구는 장판석의 모습이 담겨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이처럼 '미씽2'는 단 2회 만에 시청자를 웃기고 울리고 먹먹하게 만들며 추운 연말, 마음을 따스하게 덥히는 '웜톤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이



지 아버지는 어떻게 참고 살아야?"라며 터진 김명자의 오열은 보는 이까지 마음 아프게 했다. 나아가 사라진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김욱, 장판석의 활약이 보는 이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한편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는 매주 월, 화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2022 MBC 가요대제전' 스페셜 스테이지 2차 라인업

'2022 MBC 가요대제전'이 아티스트들의 색다른 조합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 날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오는 12월 31일(토) 밤 8시 40분에 방송되는 '2022 MBC 가요대제전'은 우리의 최정상을 아티스트들이 모여 음악으로 화합하는 특별한 축제다.

앞서 '끝사랑'로 뭉친 문빈&산하(ASTRO), 유태양(SF9), 김요한(위아이)을 비롯해 감성 보컬라인 윤하와 NCT 태일 해찬, 이무진과 (여자)아이들 미연의 만남 등 장르 불문의 컬래버레이션 라인업이 공개돼 축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페셜 스테이지 2차 라인업이 배일을 벗어 기대지수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

먼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토키티 걸그룹 멤버들이 총출동, 아린(오마가결), 최유정(Weki Meki), YENA(최예나), (여자)아이들 우기, 추가 통통 튀는 무대를 꾸며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린다. 과연 '99즈'가 펑크한 새해 첫 곡은 무엇일지, 기본 좋은 설렘이 샘솟는다.

걸그룹 특집 무대가 있다면 보이 그룹의 퍼포먼스도 빠질 수 없다. 글로벌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THE BOYZ와 ATEEZ가 4세대 대표 보이그룹의 저력을 과시한다.

이들은 '2022 MBC 가요대제전'의 주제인 사랑에 걸맞은 노래로 전세계 팬들의 심장을 저격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성악가 조수미, 슈퍼주니어 러욱의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도 펼쳐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와 2세대 아이돌 열풍의 주역이 만나 어떤 하모니를 들려줄지 궁금해지는 상황. 두 사람이 선사할 감동의 순간이 기다려진다.

K-POP을 이끌어갈 하루키 TEMPEST와 케플러(Kep1er)는 상큼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두 그룹명을 절묘하게 합친 '스텔플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너지를 폭발, 팬들의 마음을 쿡 집어낼 계획이다.

기대감을 드높이는 조합으로 연말을 아름답게 장식할 '2022 MBC 가요대제전'은 오는 12월 31일(토)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바빌론' 크리스마스 맞아 마고 로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가득 담긴 스페셜 스틸 공개!

'라라랜드' '위플래쉬' 데미언 셔젤 감독의 신작이자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의 만남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바빌론'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마고 로비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담긴 스페셜 스틸을 공개했다.

'바빌론'은 황홀하면서도 위태로운 고대 도시 '바빌론'에 비유되던 할리우드에서 꿈 하나만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이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특별히 공개된 스틸은 마고 로비만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가득 담겨있어 눈을 떼 수 없게 한다. 화려한 파티 속 붉은 드레스와 풍성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춤

을 추고 있는 마고 로비의 스틸은 배우를 꿈꾸며 거침 없이 꿈을 향해 내달리는 캐릭터인 '넬리 라로이'와 완벽하게 혼연일체 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파티 속 수많은 사람들이 마고 로비를 향해 열광하는 모습이 담긴 스틸은 극 중 모두를 사로잡을 '넬리 라로이'의 특별한 매력과 재능이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

좌중을 휘어잡는 본 투 비스타 바이브를 물씬 풍기는 마고 로비의 모습은 '넬리 라로이'가 펼칠 예측할 수 없는 활약을 기대케 하는 것과 더불어, 스틸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뜨거운 파티 한가운데로 이끄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바빌론'이 선사할 황홀한 볼거리에



대한 흥미를 한껏 고조시킨다.

한편, 지난 LA 프리미어 시사회 이후 "마고 로비의 연기는 마치 토네이도와 같다."(Flickering Myth), "인생 연기 펼친 마고 로비!"(Next Best Picture),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와 같은 출중한 배우들의 존재는 언제나 즐거움을 준다."(The Guardian) 등 마고 로비의 열연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 '바빌론'을 향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바빌론'은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탁월한 영상미와 흥겨운 음악으로 2023년 2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것이다.

황지원/기자



사상구, 2022년 폐수처리업체 단속 실시

부산 사상구는 2022년 관내 폐수처리업체 8개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조치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과 더불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함께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19건, 사법처분 2건, 과태료 10,600천원 부과처분 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겨울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불시에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4곳이다.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량 공회전 행위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및 경유 자동차에 해당된

다. 금일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을 적발하지 못했으나 향후 위반 차량이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C를 초과하거나 영상 5°C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을 줄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줄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연료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도민 안전 위해 연말연시 축제·해맞이 행사 등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시사는 23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성탄절과 연말연시인 만큼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칫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성탄절과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수원시 수원역 로데오 성탄절 축제와 고양시 행주산성 신년 해맞이, 동두천시 소요산 신년 해맞이 등 총 14개 시군, 18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먼저, 사전 단계로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관할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

지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행사장 참여 인원 동선 관리, 안전통제선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은 물론, 행사 개최 중과 종료 후 참여 인원 분산 등 상황관리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2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지역축제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점검 대상은 14개 시·군 16개소로 시흥시 제야의 종 타종식, 평택시 평택호 해맞이, 남양주시 봉선사 타종식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행사장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남한산성 해맞이와 같이 주요 명산, 공원 등에서 개최되는 축제자 없는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대해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시군 전담부서와 경찰서, 소방서에 즉각적인

상향전파와 함께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함께 가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 소비·투자분야 재정집행 추진을 위한 도-시군 간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오 부지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부문 지방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으로 도 4,931억 원, 시·군 3조 8,96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6조 6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재정집행 논의 후에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도-시군 인사교류계획 등 주요 안전 논의가 이어졌다.

조혜영/기자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 외국인대상 인터뷰 7,429건,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2년 5월말 대비 10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이 약 170%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뷰 7,429명을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미국 28.0% 2,077, 싱가포르 11.2% 829명, 중국 6.1% 451명, 일본 5.0% 372명, 캐나다 4.1% 302명, 호주 3.2% 241명, 필리핀 3.1% 233명 등 이었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①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 ② 승객과 택시 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



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

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객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 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광주 서구, 불법 노상적치물 2023년부터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자진 정비 극대화

광주 서구는 2023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대로 일일 및 주택가 등 노상적치물 난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상가, 노점 인근 토착화된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이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일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구는 2개소 6명의 정비반을 편성해 노점, 간선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 계고 후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주차확보용 적치물(페타이어, 라바콘, 화분 등)은 1회 계고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시 1~2일 내 강제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1~3회 계고 후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

아울러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



한 주민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 SNS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인구밀집 구역에 현수막을 게첨해 연말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단

속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병수/기자

남원시 겨울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동동 동화축제

남원시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와 동동 동화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12월 22일과 23일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13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검토하고 보건소,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원순창지사, 건축사 등 총 15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 소방, 전기·가스설비와 설치 구조물, 체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며 안전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열리는 겨울축제는 코로나19 발생이후 3년만에 열리는 축제로 동절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실내 체험시설과 먹거리 장



터에서 개인방역을 적극 권고하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 동선확보 및 대피장소 등도 점검하게 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고 없는 축

제 개최로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범죄 꿈작마!' 양천구, 방범용CCTV 273대 추가설치, 3,675대 24시간 운영

지난해 대비 방범용CCTV 104개소(273대)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양천구는 올해 방범CCTV 273대를 추가 설치하고, 총 3,675대의 방범카메라를 활용해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해결을 위한 24시간 관제 모니터링과 영상녹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올해 방범CCTV 사업을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 바 있다. 5~10월에 추진한 1차 사업은 유관부서와 협조해 61개소에 176대의 카메라를 신규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9개소에도 12대를 증설해 도시안전을 강화했다.

특히 신월3동 경인어린이공원에 CCTV기능과 더불어 공원등, 공공 와이파이, 무선랜드론 충전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폴(S-Pole)1' 2대를 설치해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

했다. 아울러 신정2동 쪽방촌(신목로 6길 39 일대)에는 무려 10m 높이의 '화재감시용 CCTV'를 설치해 감시 사각지대 없는 광범위한 화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화재 발생 시 열화상 및 연기 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상황을 전파하면 회전카메라로 현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어 화재진압 시 중요한 상황판단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9월부터 12월 초까지 진행된 2차 사업에서는 23개소에 65대의 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 또한, 성능개선을 위해 카메라 29대를 전격 교체하고 2대를 추가 증설했다. 특히 2차 사업은 '안심화장실' 운영에 중점을 두고, 공중화장실 7곳 출입구에 방범CCTV 신규설치해 구민 누구나 안전하게 공



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다.

이기에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단속CCTV, 보안등, 도로안내판 등 기존에 구축된 시설을 활용한 방범CCTV 설치사업을 통해 비용절감 및 통행불편 없는 사회안전망이 곳곳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조철기 도의원”

**조철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각광받아**

조철기 도의원은 지난 1965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탕정초, 온양중·고, 예산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졸업후, 탕정지역사회복지회 이사, 2004년 열린우리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조직국장을 역임했고, 2010년과 2014년에 제6·7대아산시의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 제11대 충남도의회원, 그리고 지난 2022년 제12대 충남도의회에 연이어 당선돼, 현역의원으로서 어느누구 못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열정을 다해 달려 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 이래 여러분야에서 충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입안들을 제시해 충청남도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그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가를 그가 대표 발의하거나 의회 5분발언 등을 제안한 안건들을 집중해서 조명해 봤다.

▲먼저, 조철기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에 대한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이날, 제340회 임시회에서 '기업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법 개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동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2020년에는 9만1363명, 2021년은 11만6759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으며,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41%에 다다라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과하 현실을 맞이했다"면서 "시·군·구 단위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으로 108개로 증가했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2017년 1483개 2021년 1791개로 크게 증가해 속히 기업의 지방 이동을 통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채택된 이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참고로 조 의원이 발의한 이 안건은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안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기에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조철기 의원은 2022년 9월 15일 제340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 통하여 대한민국을 충남도가 선도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곡교천 리버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현실의 사물·장비 등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한 것)과 스마트 수문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천수위와 피해 범위를 예측하고 39개의 수문과 11개의 펌프장, 재해예경보와 같은 모든 재해예방시설을 적기에 구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능형 하천시스템의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의 탕정지구와 신도심-원도심의 상생 발전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도심지를 관통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막대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곡교천 수계지역에는 약 75만 명의 충남도민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아닌 지능형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최적의 하천"이라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우선 순위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19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안 건의안을 제34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도시경관 해치는 옥외광고 막는 것은 국내 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첫인상이라 말할 수 있으며 광고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구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으로 도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중 맨홀과 하수구의 덮개, 공동구 등을 추가 신설해 광고물 등에 의해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게 됐으며, 한편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조철기 충남도의회는 제34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인 충남도-도의회 간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협의회 운영방안」 제안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조 의원의 5분발언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2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참석하여 '23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 시간을 가졌으나 이미 편성이 된 예산을 도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말 그대로 예산정책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과 논의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도-도의회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충남도민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협의회의 명칭변경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하면서 "2023년도부터 어린이집 교육비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명목으로 더 이상 유아교육비 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라며 "2022년 현재도 기존도의 부담 금액인 65억원에서 59억원만 도교육청에 지원하였고 미지급된 6억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추정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악화라는 핑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충남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태도"라며 "도는 속히 이에 대하여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조철기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 조례안은 2022년 12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에 추가하였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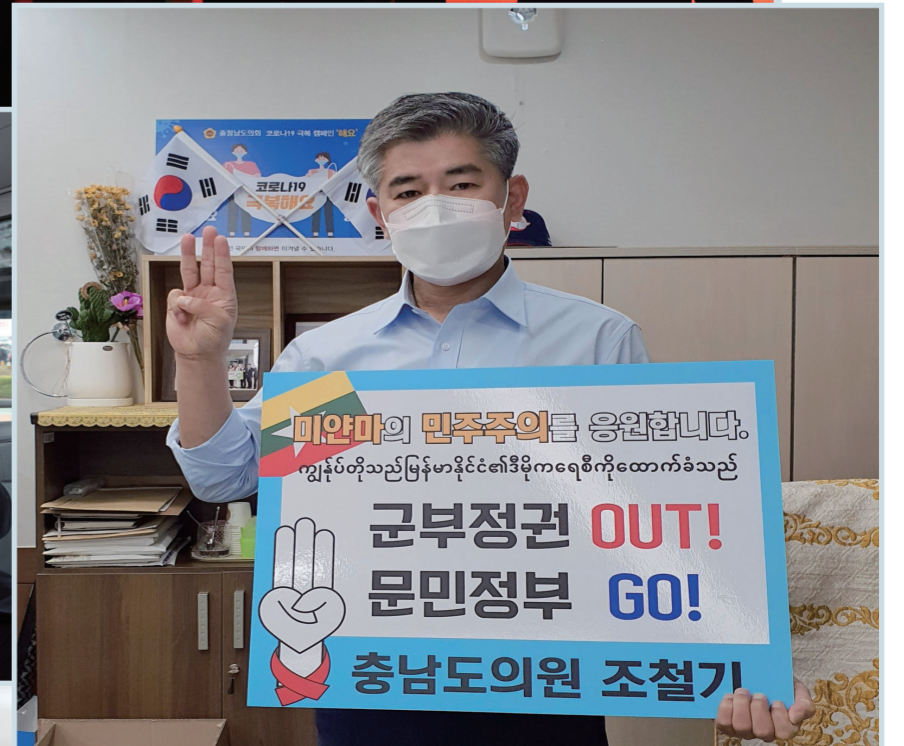
조철기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지역 주민의 평가는 매우 좋은 편이다.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M모씨는 "우리 조 의원은 시원시원한 분이 다.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에 과감하게 따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이를 반드시 시행해 옮기도록 하는 등, 믿음직한 도의원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조철기 도의원은 '거침없는 하이킥'처럼 각종 안건을 찾아 이를 정책발의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오고 있는 참 충청남도의회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다.

끝으로 그는 "저의 꿈은 더욱 더 험난 의정활동을 펼쳐 충청남도도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의회 지원활동을 다하며,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우리 충청남도도 전국을 선도하는 도가 되는데 일조하는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힘껏 뛰겠다"면서 "우리 의원들을 믿고 지켜 봐달라"고 야무진 각오를 피력했다.

이에 취재진은 조철기 의원의 의정활동의 보다 원활하게 잘 이뤄져 질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충남도정과 충남도의회에 상생발전이 확실하게 이뤄져, 상호 'win-win'하길 기원 드러 본다.

최정근/기자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16년~2020년 기증자료 수록 소장품목록 발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박물관에 기증된 자료 총망라한 소장품목록 제13권



한성백제박물관(유병하 관장)이 수년간 여러 기증자에게서 기증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소장품목록 제13권(2016~2020년 기증유물)을 발간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인에게서 기증받은 문화재를 촬영하고 목록화하여 시민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번 기증자료 소개는 소장품목록 제3권(2011~2015년 기증유물)에 이은 두 번째 작업으로서 다양한 우리나라 삼국의 토기·도자기·고분벽화 모사도 및 서적 등 320건 428점의 자료 이미지와 정보를 담고 있다. 내용은 2016년~2020년 동안 11인이 기증한 다양한 자료를 기증 수량과 연도별로 분류하여 순서대로 정리하여 구성했다. 해당 기간 중에 이제열 기증자의 백제토기를 비롯한 토기류가 155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순서대로 진경요·김영엽·최정

해·김리나·이상윤·성기인·(민관기·김규옥)·유경지 및 김남주 기증자료들을 수록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그동안 각 분야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자료의 가치를 세밀하게 검증했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기증자료 특별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소개하고 있다.

이번 소장품목록에는 한국과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흑유다완(黑釉茶碗)·청자 및 청화백자와 더불어 갑발(匣鉢)·도침(陶枕) 등 요도구(窯道具) 등 도자기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수록됐고, 일제강점기 옛 조선시대의 고적(古跡)을 망라하고 있는 '조선고적도보' 등의 자료 역시 포함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다양한 자료들을 지면을 통해 일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소장품목록을 통해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증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수/기자

2022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우리, 생활문화, 지탱유니버스' 성황리에 마쳐

▶ 경기도 31개 시군구 내 다양한 생활문화 주제들의 만남의 장

▶ 개막식, 생활문화토론회, 현장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현장생증계, 즉흥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8일(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2022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우리, 생활문화, 지탱 유니버스>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방송국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의 다양한 생활문화 주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막식·토론회·현장 생활문화플랫폼·축제 현장생증계·즉흥극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활문화플랫폼 단체들의 스킵매드 뮈기 개막식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생활문화토론회가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행사에는 생

활문화 전문가·지역활동가·기초문화재단 및 생활문화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이 참여했다.

이어 공간1986 멀티빙커에서는 2022년 경기생활문화센터 사업에 참여했던 18개 플랫폼 단체들이 부스별 주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현장생활문화플랫폼'이 진행되었다. 각 단체의 부스 운영 및 즉흥극 공연을 통해 연출가, 배우, 그리고 축제 현장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축제장에서 하루 동안 펼쳐진 일을 즉석에서 짧은 극을 만들어 축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당사자 중심의 생활문화 축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 생활문화를 만들어온 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생활문화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라고 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의 지난 생활문화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생활문화 주제들을 초대하여 그간 쌓아온 현장·사람·이야기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문화재단이 지역과 협력하여 생활문화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생활문화축제 영상은 경기생활문화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31-296-0542(평일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조혜영/기자



서울시, 망원 서울함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음악회 개최

시 한강사업본부, 서울함공원에서 12.25.(일) 지역사회 어린이 초청 '천사음악회' 개최

올 크리스마스에는 망원 서울함공원에서 이색 나들이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느껴보면 어떨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12월 25일 서울함공원 안내센터 2층에서《2022 마음의 빛을 밝히는 천사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개장한 서울함공원은, 퇴역 군함 3척을 활용하여 조성한 서울시 최초의 함상공원으로 이색적인 풍경과 더불어 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망원한강공원의 나들이 명소이다.

《2022 마음의 빛을 밝히는 천사음악회》에서는 '기적의 음악',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라 불리는 큰 사랑을 받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으며,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린이와 가족을 초청해 의미를 더한다.

공연을 선보이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2007년 3월 창단해, 클래식 연주단체 최초로 독도에서 공연했고, 뉴욕 카네기홀·도쿄



Arts Special.모스크바 장애인 국제음악제.미시간 국제 음악제 등 국내외 많은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2022 마음의 빛을 밝히는 천사음악회》에서는 현악, 관악, 타악이 어우러진 앙상블을 선사하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유명곡과 함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징글벨' 등 캐럴음악을 연주해 마음을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감동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지역사회 어린이 20여 명과 그 가족을 특별 초청해 선물을 나누고 함께 음악을 감상하며 연말연시 이웃과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

시는 초청된 어린이들에게 연주회 관람 외에도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서울함공원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 및 깜짝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즐거움

을 선사할 예정이다. 일반 관람객도 음악회 관람 및 사랑의 메시지 전달 게임 등을 통한 깜짝 선물증정 시간 등 풍성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울함공원에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트리, 참수리호 외관 조명 등을 설치해 즐거운 가족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함공원 방문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에서 마을버스 16번을 이용하거나 6호선 망원역에서 마을버스 9번을 이용하여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에서 하차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각장애인 예술가와 지역사회 어린이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시민여러분 누구나 참석하시어 소중한 이웃과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3(계묘년) 고성 화진포 해맞이 행사 개최

고성군은 매년 통일전망대와 화진포해변에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의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이어 2022년 2년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해 왔고, 해맞이 인파에 대한 주요 해맞이 장소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현장 방역 등의 안전관리 지도를 게도하여 왔다.

그러나, 고성군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고성군의 무한 도약의 전기를 만들 교류거점지역 국가교통망 확충의 중대한 현안을 앞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희망을 기원하는 "2023 고성 화진포 해맞이축제"를 내년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화진포 해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대응과 관광객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행사로 축소하여 개최된다.

화진포해변 일원에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촛불 소원성취 기도, 새해 메시지 쓰기, 함명준 고성군수와 김일용 고성군의회 의장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기도, 오전 7시 43분경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은 해변에 떠오르는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게 된다.

고성군은 해맞이 행사장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성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진포 행사장 입구 및 주변 주차장의 교통정리를 철저히 하고 구급차량과 소방차량도 현장에 배치 계획이다.

특히, 고성군은 신년 해맞이 관련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맞이 명소 등에 고성군청 공무원을 담당구역별로 배치(해수욕장 및 향포구 22개소)하고,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해맞이 밀집방지 및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 근무에 나설 계획이다.

이등원/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기원 해맞이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는 2023년 1월 1일 06시 30분부터 그린아일랜드에서 癸卯年(계묘년) 신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영상 상영, 퓨전 국악 공연, 개개인의 새해 소망을 카메라에 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가 뜨는 시각에 큰 북소리로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상호 덕담 및 박람회의 성공과 각자의

소망을 기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해맞이는 새롭게 조성된 그린아일랜드에서 열리는 만큼 참석할 시민들은 도심 속에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는지 2023정원박람회를 미리 만나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추은 날씨에 대비해 자원봉사단체에서 따뜻한 차와 떡국을 나누고, 박람회 공식 후원은행인 농협과 광주은행에서 각각 핫팩과 어묵을 후원할 예정이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은 "2023정원박람회는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보여주기만 했던 박람회에서 삶 속으로 들어오는 박람회로, 웰니스와 메타버스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새해 소망과 박람회 성공 기원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도시 발전 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포부로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제정원, 순천만습지 및 도심권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경상남도,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도 보고 하동케이블카도 타고!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2일 경남 (☞)하동케이블카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도시설 연계할인 관광협약으로 2023년 5월4일부터 6월3일까지 31일간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은 하동케이블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으로는 일반탑승 기준 대인 2만 원/1만 6,000원, 소인 1만 5,000원/1만 1,000원으로 각각

4000원이 할인된다.

하동케이블카는 남해안의 관광 명소와 대표 레저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다도해와 금오산 절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남해안 관광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옥순 조직위 사무처장은 "연계할인 참여 관광시설을 더 확대하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는 차 천년관, 녹차의 의학적 효능을 소개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합관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D-30일 맞이 행사로 개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녹차 진상식'을 시작으로 행사기간 동안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100여 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차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도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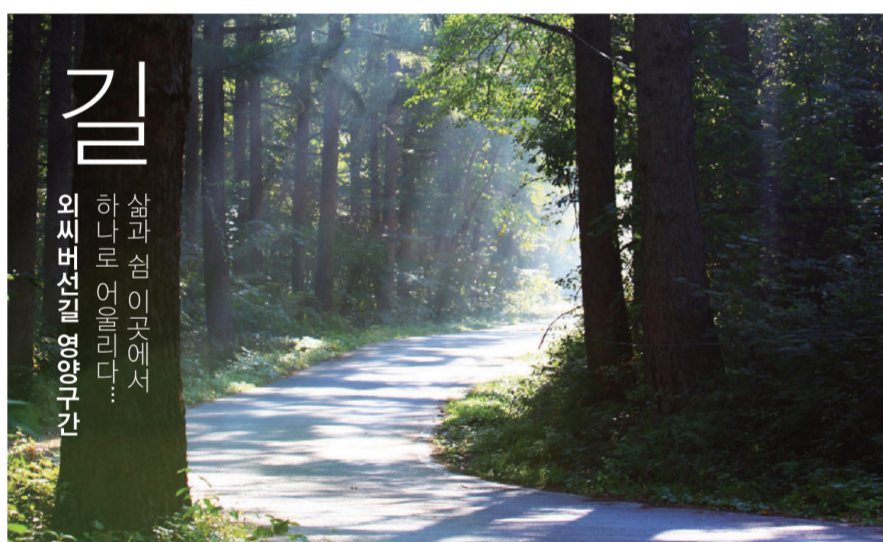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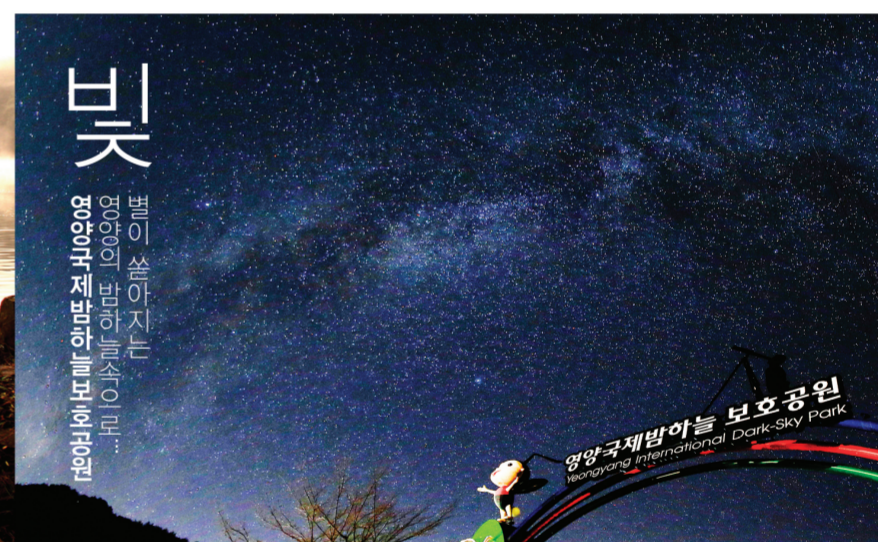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의 푸른빛과
영양의 맑은 물
영양의 푸른빛과
영양의 맑은 물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이
영양의 푸른빛과
영양의 맑은 물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의 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의 서적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